

2010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KHU

2010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President's Annual Report



2010년 4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목차

발간사

I. 개교 60주년

1.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출발

- 개교 60주년 기념식: 경희의 비전과 역량 공유 12
- WCF·WCYF: '글로벌 경희'의 역량 확인 12
- '2009 응비의 해': 소통과 화합, 열정과 창조의 축제 14
- 소통과 창조의 퍼레이드: 2009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일람표 16

2. 밖에서 본 경희 2009

- 2009 《중앙일보》 대학평가 경희대 8위 18
- 사립대 결산 경영 평가 경희대 공동 1위 18
- 《더 타임스》 세계 대학평가 300위권 진입 19
- 경희대 국가고객만족도 2위, 경희의료원도 2위 19
- 전국대학장애인학생 지원체계 평가 경희대 3위 20

II. 학문과 평화

1. 교육 부문

- 2010학년도 편제 개편: 모집단위 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 24
- 세계적 교양 대학 Lux Humanitas College(가칭) 준비위원회 출범 24
-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경희의 브랜드로 정착 25
- 교양과정 통섭 과목 개발 활발 25
- 교수학습 지원체제 강화 25
-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 26
- 개원 1년 법학전문대학원, 법대 동문과 결속 다져 27
- '경쟁에서 협동으로': 튜터링에 1,024팀, 2,630여 명 참가 27
- 현장 연수활동 학점 인정 28
- 영예학생 프로그램(Pride and Honor Program) 28

2. 연구 부문

- 연구에 박차 가하는 WCU 30
- '창조 21' 프로젝트, 최종 3개 후보 사업 선정 31
- 연구 지원 제도 강화 31
- 교수 승진 및 업적 평가제도 개선 32
- Search & Recruit Committee, 우수교원 32명 특채 32
- 활기 띠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32
- 청원연구년제 시행 33
- 교육·연구수월성위원회 신설 33
- '경희 Fellow' 10명 선정 34
- 5년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교수' 채용 34
- 교원 정년 5년 연장 34
- 목련상 첫 수상자: 유명철 석좌교수, 고(故) 이성호 교수 34
- BK21 중간평가, 6개 팀 신규 진입 35
- 등재지 2개, 등재후보지 6개 보유 35

3. 실천 부문

- Kyung Hee Global Service Corps 출범 36
- 경희-유네스코 워크캠프 36
-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경희평화워크숍' 개최 37
- 재소자를 찾아가는 실천인문학 37
- Kyung Hee Global Praxis 60: 경희 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38
- Kyung Hee Action for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 38
- 경희평화봉사단 러시아 연해주 봉사활동 39
- 경희 의료봉사 연합 동아리 '원더스' 아산청년봉사상 수상 39
- "100인의 몰래 산타가 떴다!" 40
-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40

4. 의과학(Medical Science) 경희

- 의료·의학계열 재도약 위한 비전 수립 42
- 의과학연구원 출범 42
- 의생명과학원, '글로벌 의생명 네트워크' 구축 43

선형가속기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 43
 의료기관 통합월례회의, 의료기관장회의 시행 43
 제3의료원 설립 가시화 44
 경희의료원, 내분비대사센터·자연요법센터 개설 44
 동서신의학병원 암치료 다학제간 시스템 구축 45
 한방병원 한약제제 출시 45

Ⅲ. 세계와 경희

WCF 2009: '국제화 경희' 48
 지구촌 청년문화의 발상지, WCYF 2009 48
 Global Collaborative 2009 49
 '지구적 학술공동체' : Global Studio Network(GSN) 49
 경희대와 해외 대학에서 두 개의 학위 동시 취득 50
 해외 파견 학생, 외국인 유학생 증가 50
 이용자 만족도 높은 외국인지원센터(CISS) 51
 국제화추진위원회, 단대별 '7+1 제도' 검토 51
 Global Collaborative Abroad Program(해외 집중 전공 연수) 51

Ⅳ. 창조와 도약

1. 행정 부문

대학자체평가(O & P Review) 56
 KH Spirit & Pride 사업 : 연구역량, 교육수월성, 구성원 만족도 56
 대학 감사, 자율운영체제 조기 정착 지원 57
 자율운영 제도 실시 57
 평가와 보상, 지원 체계 합리화 58
 교직원 특별승진제도 시행 58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58
 전문행정추진위원회 구성 59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운영 59

2. 복지 부문

- ‘경희어린이집’ 개원 60
-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 60
- 최적의 캠퍼스 환경 추구하는 복지추진위원회 60
- 단체협약, 복지 관련사항 상향 조정 60

3. 연구·교육 인프라

- 캠퍼스 마스터플랜 62
- 양 캠퍼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63
-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64
-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캠퍼스 64
- 첨단 강의실(U-Class System),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 시스템 65
- 캠퍼스 종합개발팀 개편 65
- 학생생활지원존 설치 65
- 교내 경관 조명 개선 65

4. 대학 문화

- ‘경희커뮤니케이션21’ 회의록 111건 업로드 68
- 동문까지 참여하는 ‘정책 제안방’ 68
- 클린 캠퍼스 캠페인 68
- 대학 홈페이지 개편 68
- UI(University Identity) 개편 69
- 뉴스레터 《Lux Humanitas》 2호 발간 69
- ‘미니홈피 경희’ 개설 69
- 《2010 정책 편람》 제작·배포 70
- 공보위원회 신설 70
- 중앙도서관 앞 녹지 ‘미네르바 정원’으로 변모 70
- 문학의 향기 가득한 ‘고향문화동산’ 70
- 정명훈이 지휘한 개교 60주년 ‘목련음악회’ 71
-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비전 콘서트’ 71
- 송년회 영상물, e-카드 등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71



5. 전진하는 경희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74
-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폰 클리칭 교수 특강 74
- 세계적 석학 초청 콜로키움 개최 74
- 의학, 과학 분야 교수 연구 성과 75
- 문화재 위원, 국제기구 승인 등 교수 대외 활동 활발 76
- 신개념 IPTV, 차세대 교정치료법 국책 연구비 수주 77
-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 개장 77
- 테너 호세 카레라스 대학장 수여 78
- 동서신의학병원, 1일 외래고객 3,000명 돌파 78
- 재학생들, 국내외 각종 공모전 석권 78
- 국제대학원 김나혜, 유엔 정식 채용 79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희의 봉사 활동 79
-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예체능 경희’의 눈부신 성과 80
- 개교 60주년 기념 ‘경희인의 밤’, 1,000여 동문 성황 81
- 해외 동문 모교 방문 60주년 함께 축하 81

사자와 목련

- 총장 365일
- 통계로 본 경희 2009
- 경희 조직도



서울캠퍼스 분관 앞 동상

‘희망 2010’ 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60년



지난 2009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주년을 맞아 경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 미래를 위한 ‘참여와 도약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함께하고, 즐기고, 보람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3년여의 준비를 거쳐 막을 올린 개교기념식과 5월 축제, UN, UNESCO, NGO 협의체, 해외 대학, 전 세계 청년·학생이 함께한 World Civic Forum과 World Civic Youth Forum. 지구마을 곳곳을 찾아간 현신적 봉사활동. 경희의 발전적 위상을 보여준 대외 평가. 연말 성공적인 60주년을 자축하며 4,000여 경희인이 함께한 목련회의와 목련음악회. 이 모두 경희인이 함께 만들어 낸 창조적인 경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일궈낸 교육·연구, 국제화, 행정, 복지, 재정 분야의 큰 진전도 경희의 내실을 기하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60주년을 보내면서 세계적인 대학을 향한 경희인의 열정과 합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서 새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감사 서신’입니다. 연말 목련회의에서 서울, 국제 캠퍼스 총학생회 대표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성공적인 개교 60주년과 대학의 위상 제고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신자는 총장이었지만, 경희가족 모두와 함께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60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0주년의 성취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준비해온 Lux Humanitas College는 세계적인 교양대학을 지향합니다. 교내외 석학, 전문가, 실천인이 함께할 이 대학은 미래 고등교육, 교양교육을 이끌어갈 지식과 지혜, 봉사와 실천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뉴욕, 북경, 파리, 동경 등 전 세계 학술·문명의 거점도시를 실시간 연결할 Global Studio Network(GSN)는 경희와 세계가 소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입니다. ‘창조 21’ 프로젝트는 교육, 연구, 실천의 융합과 창조를 지향합니다. 21세기 고등교육기관의 새 전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과학 경희’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 의료 유관 학문을 망라하는 경희의 의과학은 공학, 생명과학, 인문·예술 등 인접 학문분야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합니다. Global Medical Complex를 지향하는 제3의료기관 건립과 함께 의료세계의 전일적, 체계적 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지난 3년여 준비 끝에 올 상반기 착수할 캠퍼스종합개발계획 ‘Space21’은 이 모든 꿈을 담아내며 경희의 새 출발을 알릴 것입니다.

학술기관의 정상에 선 대학. 지구와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대학. 이 두 가치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쌓아온 경희인의 긍지이자 포부입니다. 경희의 ‘문화세계’이자, ‘공유된 미래’입니다. 이를 통해 경희는 진취적 기상과 응지를 펼칠 것입니다.

도약과 성취의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의 ‘변환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 소통하고 창조하면서 경희의 새로운 지향 ‘Global Eminence’를 구현했으면 합니다.

개교 60주년

1949~2009.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한
경희의 60년은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 분야에서 괄목
할만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개교 60주년은 경희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 위에서 경희의 전 구성원이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는 축제 한마당이었습니다. 경희인들이
새삼 확인한 소속감과 자긍심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재도약하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출발

개교 60주년 기념식 경희의 비전과 역량 공유



경희의 전통, 경희의 열정, 경희의 미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평화의 전당에서 거행된 개교 60주년 기념식은 경희공동체가 자랑스러운 6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6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제2의 개교일’이었습니다.

학생 2,500여 명, 교직원 500여 명을 비롯해 자원봉사단, 동문, 내외 귀빈, 지역 주민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은 식전 행사에 이어 내외귀빈 입장, 기념사 및 축사, 테마 동영상 및 미래 비전 프레젠테이션, 축하 음악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은 딱딱하고 평면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경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 전체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조인원 총장은 기념사에서, 경희의 상징인 ‘웃는 사자’와 ‘목련’을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60년에 도전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대학원 시절 만났던 두 스승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학문적 권위의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교육과 연구가 대학의 기본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며 창조하는 공동체 문화를 돈독히 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송 교수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기념식 전 과정은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총동문회,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개교 60주년의 하이라이트인 개교 기념식은 대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행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다운 대학’ ‘미래 대학의 전범’으로 도약하려는 경희의 비전과 실질적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개교 60주년을 경희의 찬연한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며 ‘내 안의 경희’ ‘경희 안의 나’를 확인하는 역동적인 축제였습니다. 경희 가족의 화합과 열정, 참여가 없었다면 60주년의 의미와 성과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4만여 학생, 교수, 교직원과 23만 동문의 저력과 지혜를 모아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대학 발전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자신감에 바탕한 진취적 대학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2009 목련회의에서 경희인은 개교 60주년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자축하면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비전 ‘희망 2010’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세계적인 교양 대학 Lux Humanitas College 설립,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 출범, ‘창조 21’ 프로젝트 본격 착수, KH Global Service Corps 구성,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 캠퍼스 마스터플랜 1단계 가시화 등을 통해 학문적 수월성과 동시에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며, 인류사회를 위한 새로운 보편 가치를 창출해나갈 것입니다.

WCF·WCYF ‘글로벌 경희’의 역량 확인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향하여(Building Our Humanitarian Planet)’.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시민포럼(WCF) 2009’ 창립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희대가 유엔 경제사회국(UNDESA)과의 협력을 통해 주최한 WCF 2009는, 인류의 염원인 평화와 인류 복지, 지구 정의 등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고등교육



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전 지구적 포럼입니다.

WCF가 처음 출범하는 자리에는 폴 케네디 미 예일대 석좌교수,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저우치핑 중국 베이징대 총장 등 세계적 석학과 한승수 대한민국 총리, 샤 주캉 유엔 사무차장, 한스 도빌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를 비롯, CoNGO(유엔NGO협의체), 미국 프린스턴대 우드로 윌슨 스쿨 등 12개 기관 파트너 등 모두 57개국에서 3,000여 명의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조인원 경희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명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재앙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창조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총장은 “사회적·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 다자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국제사회, 인류애와 지구애에 바탕한 세계시민사회가 서로 손을 잡고 보다 나은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CF를 공동 발의한 유엔 경제사회국 샤 주캉 사무차장은 개식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을 계몽하고 최고의 발전을 위한 시민 협약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포럼은 조인원 총장, 가와구치 기요후미 일본 리쓰메이칸대 총장, 저우치핑 북경대 총장, 샤 주캉 UNDESA 사무차장 등이 ‘고등교육기관의 지구적 책임’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전체회의는 WCF 창립대회의 대주제인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향하여’를 놓고 김여수 경희대 미래문명원장,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 세시 벨라르르 미래재단 부소장 등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체회의는 고등교육기관과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공동 협력이 실현된다면 인도주의적 가치에 바탕한 새로운 지구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회의에 이어, 새로운 보편가치로서의 시민가치의 회복,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 폭넓은 시민 행동의 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 개의 주제별 총회의가 열렸습니다. 특히 시민 행동을 테마로 한 ‘주제별 총회의 3’에는 세계적 석학과 국내외 학자, 전문가 외에 경희대 관련 단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적극 참여, 토론의 심도와 열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WCF 2009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시민적 가치, 시민 참여, 시민적 행동을 고양시키기 위해 인간 중심 철학, 관련 역량 강화, 그리고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WCF 출범은 경희대가 개교 이래 꾸준히 추진해온 대학의 세계화·국제화의 결실이자,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서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경희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WCF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는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2009’가 열렸습니다. 경희대가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WCF와 함께 기획한 WCYF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지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지구적 의제를 성찰하는 포럼이자 축제였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이슈와 세계 대학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창립대회에는 아시아,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30여 개국에서 7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5월 5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CoNGO 의장은 “지구는 대학생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의 것인 만큼 더 좋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계 대학 청년들의 자각과 주체적 참여를 역설했습니다.

평화, 환경, 개발, 인권, 성(Gender), 문화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이어진 포럼 외에도 참가 학생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태권도 시범, 비보이, 힙합, 사물놀이, 축하 음악회 등에 이어 참가자 전원이 촛불을 켜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WCYF의 성공적 개최는 세계 대학 청년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과 더불어 경희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대학 청년 문화의 새로운 발상지로 떠오른 WCYF는 국제캠퍼스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9 웅비의 해 소통과 화합, 열정과 창조의 축제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은 5월 초순, 60주년 기념식과 WCF, WCYF를 기점으로 '연중행사'처럼 펼쳐졌습니다.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 의료기관 등 경희 전 구성원이 참여한 60여 개의 프로그램이 캠퍼스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어 2009년을 '축제와 웅비의 해'로 승화시켰습니다.

각종 학술대회와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경희 정신의 '웅비'와 관련되었다면, 호세 카레라스 내한 공연과 경희 가족 열린음악회,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 개장식을 비롯한 각종 전시와 공연은 경희인의 '축제'로 승화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8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 공연은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과대, 대학원, 부속 의료기관 등 단위기관 별 기념사업은 미래 비전, 교육과 연구, 구성원 참여, 사회공헌, 역사 기록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Towards Global Eminence'라는 60주년의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교양대학은 WCF 2009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협력'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주관했고, 이과대학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클라우스 폰 클리칭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의학학술대회 및 동서의학연구소 WTO 전통의학연구협력센터 지정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개원 3주년을 맞은 동서신의학병원도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60주년에 맞추어 한국 박물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역사 자료 전시, 기념도서 출판이 이어졌습니다. 경희평화봉사단은 러시아 연해주 마을 가꾸기 사업, 재학생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Global Praxis 60)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구적·지역적으로 활성화하는 기획들을 하나하나 실현했습니다.

조인원 총장은 개교 60주년이 "참여하는 문화 속에 경희인의 자긍심이 생동한 시간이었다"며 개교 기념식, WCF, WCYF 등 큰 행사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 구성원이 함께 펼친 각종 학술회의와 예술제, 사회봉사와 자원봉사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통과 창조의 퍼레이드

2009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일람표

일정	사업명	주관
3월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고향음악회	음악대학 관악동문회
	동서간호학 연구소 춘계 국제 학술대회	간호과학대학
	'2009 추억 속의 경희' 사진 공모전	문화홍보처
4월	경희 벚꽃맞이 캠퍼스 투어	대외협력처
	경희대학교 초청 고교 교장 간담회	입학관리처
	동서의학연구소 WHO 전통 의학연구협력센터 지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경희의료원 동서의학연구소
	경희대학교 도서관 체험수기 공모전	중앙도서관
	이과대학 홈커밍데이	이과대학
	특별전시회 - '평화를 위한 진전'	미술대학
	MICE 상품 콘텐츠 경진대회 'Global MICE leader challenge'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
	Food Service Industry Service & Sommelier 경진대회	호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호텔리조트개발 컨셉디자인 기획 공모전	호텔경영학과
5월	Global Tourism Contest 일본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스피치대회	호텔관광대학 관광일어통역전공
	해의 등문을 위한 의료원 할인 행사	대외협력처
	《경희10년》출간:《경희60년-이념편》 《경희역사자료특별전(1·2권 합본)》	60주년위원회
	호텔관광대학 관공아이디어 공모전	호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개교 60주년 특별 공연 '한반도 중심, LoHas 연천'	연천군
	World Food Festival	호텔관광대학 조리과학과
	Global Praxis 60 경희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미래문명원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 특별전	중앙박물관
	세계시민포럼 2009 (World Civic Forum 2009) 세계시민청년포럼 2009 (World Civic Youth Forum 2009)	UNDESA, 경희대학교

일정	사업명	주관
5월	개교 60주년 기념식	60주년위원회
	경희역사자료 특별전 만화로 그려낸 경희의 일상·고뇌 그리고 비전 1949~2009'	중앙박물관 60주년 위원회
	세계 전통의학대학 포럼 창립 총회	한외과대학
	2009 The Food Festival 세계 요리 전시회	호텔관광대학 조리과학과
	WCF 2009 특별세션 (PRME-KHU Initiative)	경영대학, UNGC, PRME,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호세 카레라스 경희의료원 백혈병환자 위문 호세 카레라스 대학장 수여 및 특강 진행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경희의료원, 교무처 교무과 60주년위원회
	간호과학대학 홈커밍데이	간호과학대학
	동서합진 국제 심포지엄	경희의료원 동서합진센터
	Global Classroom : Seoul/WCF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
	국제의학 학술회의	경희의료원
5월	교재교구·졸업논문 발표 및 전시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KU+UM 국제프로그램 전시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의상작품 전시회	생활과학대학 의상학전공
	봉사 페스티벌 <愛美 '나' 興> (《애미-이》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와 너)	경희봉사단, 총학생회
	'행운의 출입자' 기념 이벤트 도서전시회 - 책, 경희를 만나다	중앙도서관
	제13회 경희 외국인 한마당 Kyung Hee International Festival	국제교육원
	미국 American Piano Trio 내한공연	국제교류처
	21세기 신진인류 시민 문화강좌	사회교육원
	생활과학대학 홈커밍데이	생활과학대학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국제교육원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경희사이버대학교	



일정	사업명	주관
5월	생활과학연구소 학술행사	생활과학대학
	조명희 비올라 독주회	음악대학
	총동문회 골프대회	총동문회
	60주년 특별전 및 개관 30주년 확보집 발간	자연사박물관
	경희인의 밤	총동문회
	한외과대학 홈커밍데이	한외과대학
	저명 동문 릴레이 강연회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경희 가족 열린 음악회	총학생회(서울), 학생지원처
	생명과학대학 홈커밍데이	생명과학대학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학술대회 및 홈커밍데이	교육대학원
	포스코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60주년위원회
	외대 원어 연극제(스페인어학과, 일본어학과)	외국어대학
	시·소설 문학 한마당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개원3주년 기념 학술대회	동서신의학병원
2009 세계 천문의 해 '유니버설 페스타' (Universal Festa, UF)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우주과학교육관	
경희서도회 서예 전시회	경희서도동문회	
캠퍼스 마스터플랜 기획전	캠퍼스종합개발팀	
음성군 어르신을 위한 한방의료 봉사	강남경희한방병원	
황순원문학촌-소나무마을 개장식 행사	60주년위원회	
고지도 특별전	해정박물관	
2009년 동울산 순회무료진료 봉사	동서신의학병원	
7월	재학생 동문기업 탐방	대외협력처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
	박철암 탐험집 《티베트 무인구 대탐험》 발간	60주년위원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초빙 교내특강	이과대학

일정	사업명	주관
8월	Global Praxis 60 : 경희가족 해외봉사 (러시아 연해주)	미래문명원, 학생지원처,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창작뮤지컬 '한여름 밤의 꿈'	60주년위원회, 예술디자인대학
	해정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및 고지도특별전	해정박물관
9월	식물대사연구센터 개소 10주년 국제 심포지엄	식물대사연구센터
	유전공학전공 25주년 기념 유전인 한마당 유전공학과 25년사 발간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전공
	동서의학대학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홈커밍데이	동서의학대학원
	'경희 여학생의 60년 변천사' 자료 전시회	학생지원처 여학생과
10월	경희 대동한마당 '경희 평화콘서트'	총학생회(국제), 학생지원처
	경희대학교 총동문 등산대회	총동문회
	학술대회 - 임플란트 치료의 확실한 보장	치의학전문대학원
	경희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1월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언론정보대학원
	2009 국제학술회의	국제·경영대학 국제학부
	경희문학 《내사랑 목련화》 발간	60주년위원회
	2009학년도 화학과 화학인의밤	이과대학 화학과
	Green Discovery Workshop	피부생명공학센터
	제4회 스포츠마케팅 세미나	스포츠마케팅 학술회 DREPOS
	경희언론문화인상 시상식 및 개원 20주년 기념 비전(飛擲)콘서트'	언론정보대학원
물리학과 50주년 기념 물리인의 날	이과대학 물리학과	
12월	KBS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방의료봉사	강남경희한방병원
	경희 외국인 동문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국제교육원
	60주년 송년회	60주년위원회
2010.5월	경희 간호교육 40년사 발간	간호과학대학
	교사(史) : 《경희60년 - 통사편》 사진사(史) : 《사진으로 보는 경희 60년》	60주년위원회

밖에서 본 경희 2009

국내외 각종 평가, 개교 60주년 한층 빛내

2009 《중앙일보》 대학평가 경희대 8위



지난해 9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경희대가 8위에 올랐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평가를 시작한 이래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2008년에 견주어 국제화 부문(5위), 교수·연구 부문(10위), 평판 및 사회 진출도 부문(9위)에서 모두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10위보다 2단계 뛰어올랐습니다. 교육 여건 및 재정(18위) 부문에서는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교수·연구 부문이었습니다. 2008년 18위에서 8단계가 뛰어올랐습니다. 교수 연구비와 인문사회체육 교수당 국내 논문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 교수당 국제학술 논문 수도 IF(Impact Factor) 실적과 함께 개선되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수·연구 부문은 평가 항목 중 대학의 핵심 기능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개교 60주년을 지나 새로운 60년을 향하면서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평가 8위는 그동안 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판도 제고 사업, 자율운영 체제, 국제화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동문을 포함한 대학의 전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학 문화는 경희대 특유의 성장 동력입니다.

사립대 결산 경영 평가 경희대 공동 1위

2009년 연말 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2008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경영 평가'에서 경희대가 5개 주요 사립대학 중 1위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결산 경영 분석이란 사립대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재정 상태는 어떠하며 조달한 자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대학 재정을 대학 고유활동에 얼마나 잘 투자하고 있는지, 재정활동과 교육 투자활동을 통해 얻어낸 대학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경영 도구입니다.

평가는 운영건전성, 재무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학생, 교직원, 시설 등 7개 지표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대학은 학생 규모, 자산 규모, 소재지, 의·공대 설치 유무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경희대는 1그룹에 속합니다. 평가 결과는 해당 그룹 내에서 대학이 위치하는 수준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합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립대와 비교한 결과, 경희대는 성균관대와 함께 A등급(상위 25%)을 획득했습니다. 경희대는 재무안정성(B)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지표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고, 성균관대 역시 재무안정성(B)을 제외한 6개 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고려대와 연세대가 공동 3위, 한양대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경희대의 강점은 운영건전성, 활동성, 성장성, 학생, 교직원, 시설 등 6개 분야에서 고루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환원율,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학생 등록률 등 학생 관련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직원 분야에서는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교수 1인당 연구비 등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영 비율, 인건비 구성 비율, 법인전입금 구성 비율, 기부부조금 구성 비율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 운영건전성 분야, 총자산 증가율, 운영수익 증가율 등으로 분석한 성장성 분야에서

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재무안전성은 개선해야 할 분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 경영 분석은 대학 스스로 경영상의 문제를 파악해 지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공해 대학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더 타임스》 세계 대학평가 300위권 진입



대학의 평판도, 연구 실적, 국제화 지표, 교육 여건 등을 기준으로 《더 타임스》(Times Higher Education)와 QS Education Trust가 공동 평가하는 지난해 세계 대학평가에서 경희대가 374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에 비해 110단계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세계 400위권 안에 든 국내 대학은 경희대를 포함, 총 11개입니다.

《더 타임스》·QS 세계 대학평가는 연구 실적 분야에 가장 큰 비중(60%)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논문 게재 장려금, 교비연구비 지원 제도 등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평판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위원회사무국, 문화홍보처, 중앙도서관, 연구산학협력처, 취업진로지원처, 국제교류처가 공동으로 웹진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국제화 경희'의 강점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계 대학평가에서 경희대는 외국인 학생 비율 국내 1위, 세계 236위, 교원당 학생 비율 국내 3위, 세계 9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희대는 앞으로 수년 내, 세계 대학평가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국가고객만족도 2위 경희의료원도 2위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2008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평가에서 경희대가 종합대학교 부문 단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수치입니다. 국가고객만족지수는 국가·산업·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품질 경쟁력 지표입니다. NCSI 모델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품질 경쟁력 측정 도구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신뢰도가 높습니다.

종합대학교 부문은 경희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시내 15개 주요 대학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NCSI는 위 15개 종합대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방식을 통해 교육 과정·자치 활동·교육 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희대는 100점 만점에 평균 69점을 획득, 1998년 NCSI 평가 이후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재입학 의사 등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NCSI 조사에서 경희의료원도 병원 서비스 부문에서 평균 72점을 획득,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고객인지 가치(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고객인지 품질(이용 후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문적인 자연요법 치료'를 특성화하기 위해 개설한 자연요법센터 등 고객 친화적 진료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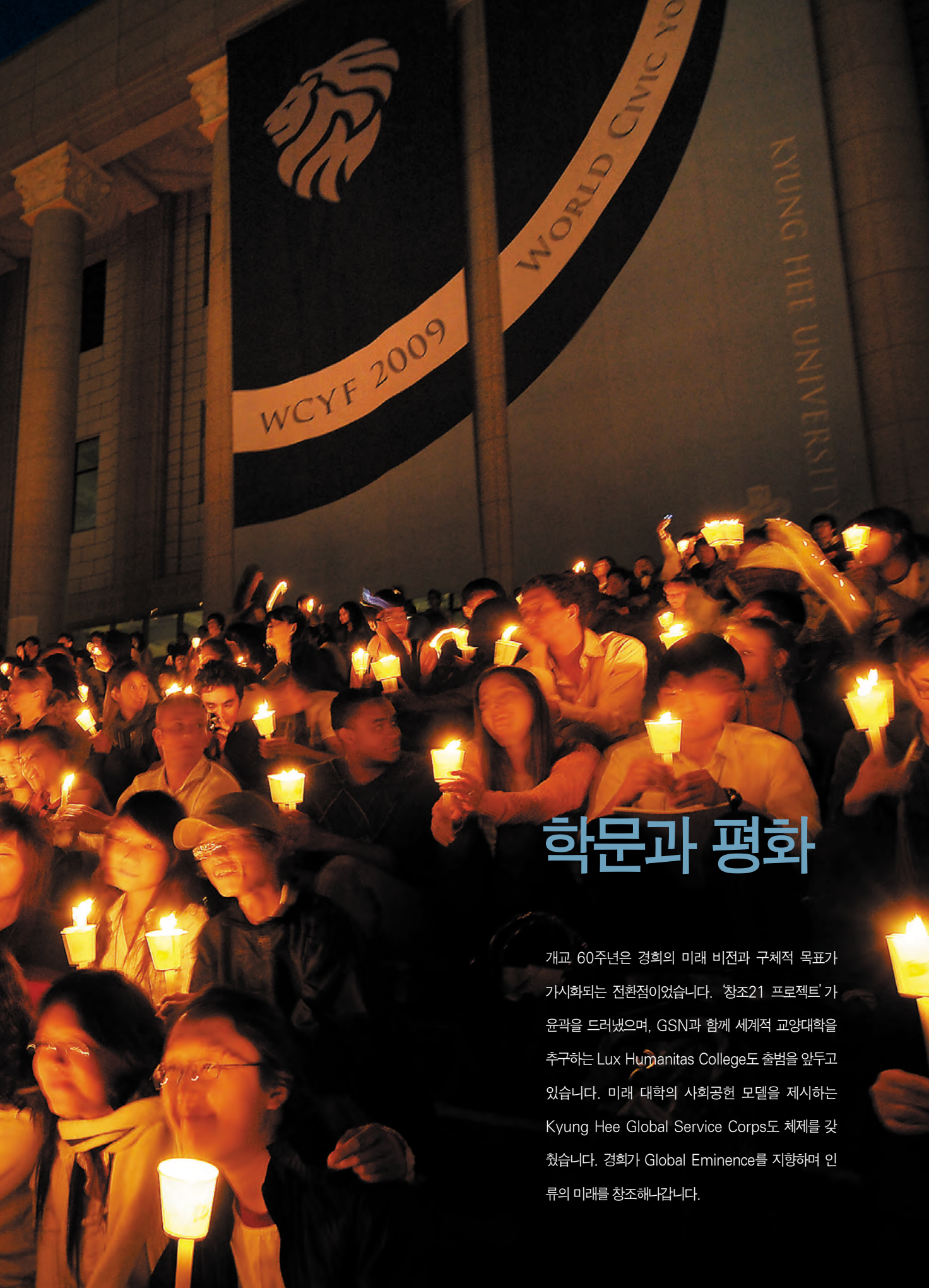
전국대학장애인학생 지원체계 평가
경희대 3위

지난해 11월 초, 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전국 23개 대학의 장애인 학생 지원 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경희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입학 전형 과정과 학습 환경에서의 장애인 지원 체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해 이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경희대는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비장애 학생들과 통합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 기자재를 대여하고 학습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과 휠체어 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전문가 특강과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WCYF 2009

WORLD CIVIC YO

KYUNG HEE UNIVERSITY

학문과 평화

개교 60주년은 경희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 목표가
가시화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창조21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으며, GSN과 함께 세계적 교양대학을
추구하는 Lux Humanitas College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 대학의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는
Kyung Hee Global Service Corps도 체제를 갖
췄습니다. 경희가 Global Eminence를 지향하며 인
류의 미래를 창조해나갑니다.

교육 부문

2010학년도 편제 개편 모집단위 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

대학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운영에 따른 학문 분야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편제를 개편했습니다. 단과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집단위를 변경하고, 학과 명칭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한편, 교육 및 연구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전공의 소속을 전환했습니다.

서울캠퍼스 정경대학의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무역학부, 언론정보학부는 모집단위를 학과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일부 전공 명칭도 달라집니다. 신문방송전공과 영상정보전공이 언론광고 PR전공, 방송영상스피치전공으로 변경됩니다. 호텔관광대학은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해 모집단위를 2개 학부로 광역화하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학부에는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컨벤션경영학과가, Hospitality학부에는 외식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가 편제됩니다.

생활과학대학의 생활과학부도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로 모집단위가 바뀝니다. 자율전공학과에 속해 있던 컨버전스사이언스 전공은 약학대학 약과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다양한 관련 학문과 어우러져 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캠퍼스는 1998년 이후 유지해온 학부(학과군) 모집단위를 학과제로 변경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제·경영대학은 경영대학 통합에 따라 국제대학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동서의과학과는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해 응용과학대학에서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공과대학의 디스플레이재료공학과와 고분자섬유신소재학과는 정보전자신소재학과로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세계적 교양 대학 Lux Humanitas College(가칭) 준비위원회 출범



세계적 수준의 교양 대학 Lux Humanitas College(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09년 11월 4일 서울캠퍼스 2층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교양교육 과정 개편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준비위는 국내외 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21세기 미래 대학이 요청하는 교양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과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Lux Humanitas College 준비위는 “대학 교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적 필요성은 무엇이고, 사회적 타당성은 무엇이며, 그 교육의 현실적 적실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목표는 결국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구체적 연구와 조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준비위는 지난 1월부터 매주 관련 학자를 초청해 포럼을 열어 미래 대학의 전범으로서의 새로운 교양교육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ux Humanitas College는 서울과 국제캠퍼스, 경희사이버대,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 등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및 거버넌스를 제시하면서,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대학의 미래를 모색하는 전 세계 대학들에게 하나의 전범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 경희의 브랜드로 정착



2008년부터 시행된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이 경희의 새로운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은 경희대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미래지향적 교육제도로, 신입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학습 및 생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몰입형 기숙교육제도의 핵심은 국제화(Global), 경쟁력(Competent), 창의력(Creative)을 갖춘 미래 리더를 육성하는 ‘GCC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방위적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들은 24개 기숙 캠퍼스에 배정되어 신입생 세미나, 실용영어,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4학점으로 구성된 기숙교육 과목을 이수합니다. 4개 기숙 캠퍼스에는 International Zone을 설치해 수시로 글로벌 마인드를 체험,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기숙사,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에는 ‘문화 충격’이 존재합니다. 기숙교육제도는 낯선 환경에 힘들어하는 신입생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합니다. 각 기숙 캠퍼스별로 지도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멘토를 배치해, 신입생들이 학습 과정이나 공동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캠퍼스의 학부대학 및 교양교육 과정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는 몰입형 기숙교육제도는 앞으로 설립될 세계적 수준의 교양 대학 Lux Humanitas College의 든든한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교양과정 통섭 과목 개발 활발



기존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지식을 포괄하는 통섭 강좌가 개발되었습니다. 국제캠퍼스 교양과정에 개발된 4개 통섭 강좌는 ‘동서양 문화 산책’, ‘예술 속 인문학 산책’, ‘진화와 인간 본성’, ‘과학기술과 윤리/공학과 윤리’입니다.

서울캠퍼스 교양학부는 2010학년도에 ‘부의 진화-게임과 네트워크’, ‘행동생태학’, ‘통합적 사고론’ 등 3개 통섭 과목을 추가 개발해 운영합니다. ‘부의 진화-게임과 네트워크’는 진화 이론 및 생태학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론을 통해 사회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행동생태학은 사회행동의 진화, 인간행동의 진화, 의사소통의 진화 등을 학습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도록 합니다. 통합적 사고론은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술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학문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섭 강좌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성찰적, 통합적, 창조적 사고 능력을 갖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교수학습 지원체제 강화

교육 수월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크게 교수 역량 향상과 학습 역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 사업은 참여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교수 대상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4.47(5점 만점), 학생 대상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4.54(5점 만점)로 나타났습니다.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수법 특강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와 디지털 세대의 수업 노하우,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극대화, 학생과의 소통-말이 통하는 교수 되기 프로젝트, 보이

스 트레이닝, 명사 초청 특강, 교수 이미지클리닉, 학생들의 성공개발 전략 등 7개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329명이 참여했습니다. 재학생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학습법 특강은 책과 소통하라, 즐거운 대학 글쓰기, 청중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발표기술, 내 꿈에 출사표를 던져라, 이미도의 창조적 상상력 디자인, 마음을 움직이는 유쾌한 토론 방법 등의 프로그램에 총 557명이 수강했습니다. 이외에도 튜터링, 학습 포트폴리오 및 학습 기술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는데, 학습 포트폴리오의 경우 43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를 위한 영어 강의 지원 프로그램과 e-러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교수자의 영어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강의 Tips' 출판, 1:1 프로그램 및 소그룹 중심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재학생을 위해서는 특강, 스페셜 런치 워크숍, 자유토론 등을 제공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입학사정관제가 정착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점수 위주로 획일화된 기존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모집단위에 부합하는 잠재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국내 대학 입시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0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네오르네상스전형 142명, 국제화전형 320명, 과학인재전형 27명, 사회배려대상자전형 144명, 재외국민특별전형 47명(서울캠퍼스) 등 모두 680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비교과 영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한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수녀원이 운영하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전문계 고교 학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 교과 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로봇올림피아드 전국대회와 세계로봇올림피아드대회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고, 양로원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해오는 등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오르네상스전형(리더십인재, 창의재능인재, 예비발굴인재) 435명, 오토피아전형(사회공헌/모범/역경극복, 지역인재) 210명, 기회균형선발전형(정원외 : 사회배려대상자, 농어촌학생, 전문계고교) 434명, 재외국민특별전형(정원외) 96명 등 총 1,175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전체 모집 인원의 21.7%에 이르고, 2010학년도에 견주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에 발맞추어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학관리처 내에 입학사정관팀을 신설했고, 전임입학사정관 12명(서울 6, 국제 6), 교수사정관 31명(서울 16, 국제 15)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저명인사 및 교육 관계자들을 위촉사정관으로 영입하고, 고교 현직교사들이 주축이 된 위촉사정관(입학전형자문위원회)을 운영해 고교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원 1년 법학전문대학원 법대 동문과 결속 다져



2009년 3월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첫 입학생 60명과 함께 개원 첫해를 '순항' 했습니다.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첫 입시원서 접수 결과, 8.9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국 평균 6.8 대 1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3월 강태수 교수와 노동일 교수의 '헌법의 기초이론 1' 과 함께 첫 강의를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은 경희대가 개교 이래 추구해온 국제화와 세계화 전통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법무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론교수 22명, 실무교수 9명 등 31명의 전임 교수진과 함께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연구소와 법학도서관, 법률클리닉, 국제교류센터, 학생지도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경희법학》과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 등을 발간하고, 국제학술대회 주최, 국내외 유관 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교류, 학술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의법정, 국제회의실, 전용 기숙사, 전용 열람실 등의 시설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에는 경희대 법과대학 동문 70여 명을 캠퍼스로 초청, 새로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최고의 명문 로스쿨로 발전시키자는 미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학생과 동문 간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경쟁에서 협동으로' 튜터링에 1,024팀 2,630여 명 참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통해 학습 능력을 자율적으로 향상시키는 튜터링 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튜터링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 결과 총 1,024팀, 2,630여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9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튜터링 관리 도우미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중간 점검 및 학습 능력 워크숍에 이어 11월에는 튜터링 중간 모임 워크숍과 외국인인을 위한 글로벌 튜터링 중간 모임을 가졌고, 12월에는 최종 모임과 우수 튜터링 팀을 선발했습니다. 튜터링은 온라인 시스템과 학습 유형 검사를 통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기 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업 만족도와 평균 학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해당 과목 성적이 A학점 이상의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이 튜터가 될 수 있으며, 신청 과목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이 튜터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라이언 튜터링은 학기마다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글로벌 튜터링은 외국인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튜터링 팀은 튜터 1명에 튜티 1~2명으로 구성되고, 한 학기 동안 32시간 이상을 활동해야 합니다. 2009년 2학기 라이언 튜터링은 경제학원론A, 회계원리A, 동양사입문, 의복구성기초A, 커뮤니케이션이론, 일반물리학 등 총 902개 팀이 참여했고 글로벌 튜터링은 글쓰기A, 영어A, 러시아어A, 호텔경영의 이해 등 12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튜터는 자원봉사 인증서와 사회봉사 학점(해당자에 한함)을 받을 수 있어 유학 및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연수활동 학점 인정



학생들이 방학이나 학기 중에 실시하는 현장 연수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합니다. 그동안 개별 연수활동과 장단기 연수활동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던 것을, 2009년 3월 관련 규정을 하나의 지침으로 통일하고 지원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2주 이상 1개월 내외의 단기 현장 연수활동은 최대 3학점까지, 2개월 이상 학기 단위 장기 현장 연수활동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고, 지정 범위 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2주 이상 80시간 이상 참여한 개별 연수활동은 연수활동별 각 1학점씩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며 학부생이 연구실에 참여, 전공 분야의 심야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연구 연수활동도 적극 지원합니다.

2009년 현장 연수활동은 1학기 583명, 2학기 722명이 참여했고, 연구 연수활동은 1학기에 93명, 2학기에는 91명이 참여했습니다. 전공 및 학기 단위 현장 연수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는 학생들의 현장 연수활동 참여를 독려,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학문 세계를 체험하게 합니다. 미래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현장 연수활동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와 학문의 접점을 찾아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영예학생 프로그램 (Pride and Honor Program)



영예학생은 '창의적 학문연구에 열정을 다하는 경희인, 미래를 선도하는 실천적 지식인, 지구사회에 봉사하는 경희인'이라는 경희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평균 평점 3.5 이상으로, 도전적·실천적 경험이 풍부한 학생 97명이 예비 영예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예비 영예학생은 2009년 7~8월 몰입형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했습니다. 이들 예비 영예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2월 말,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영예학생을 인증합니다.

영예학생제도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교육 수월성 프로그램으로 기본 소양 교육, 실천적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 및 저학년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식 공유 등 봉사 활동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예비 영예학생들은 3주간의 몰입형 기숙교육을 통해 읽기·쓰기·토론, 영어토론, 국제적 수준의 리더십 프로그램, 영어 프레젠테이션, 사회 명사 특강, 토론 경시대회 등 다양하고도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91% 이상이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지난 20년간 들었던 수업보다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이 더 많았다", "도전 의욕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다. 후배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등의 체험담을 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어 38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 교육·연구·사회봉사와 관련된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실천 프로젝트 보고서 및 발표 내용 심사 결과, Avedorado 팀이 제안한 '국내 도시정책의 새바람, 창조도시'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웃는 사자 팀의 '효율적인 도로네트워크 구축방안', 그리고 우수상은 Genesis 팀의 '퇴행성 관절염 연구 및 임상 적용방안'과, Drive In Future 팀의 'Eco-port를 주목하라'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상 팀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연해주 지역 봉사 활동, 인도 내 아폴로병원 의료봉사 활동, 청소년 교육캠프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세부 보고서는 영예학생 홈페이지(honor.kh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예학생제도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을 통한 양 캠퍼스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대외 공모전, 학술대회 논문 발표, 봉사 활동 등 전공 이외의 분야에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영예학생 프로그램은 앞으로 특별과정이나 정규학기 운영, 또는 독립된 Honors College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부문

연구에 박차 가하는 WCU



김영동 교수



김동현 교수



이동훈 교수



전종성 교수

2009년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에 최종 4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WCU는 해외 학자의 유치 및 활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융복합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입니다. 해외 저명학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형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 실적과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기대 효과를 갖습니다. 해당 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캠퍼스 김영동 교수 팀의 <나노구조체의 비파괴분석법 개발> 연구 사업은 미국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의 데이비드 아스프네스 교수를 초빙, 물리적 접촉을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빛을 이용해 비파괴 검사를 하는 획기적 방법을 연구했으며, 랩(Lab) 구축 및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세계적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총 연구비 10억 6천만 원을 지원받는 이 과제는 앞으로 <편광분석기를 이용한 반도체 박막의 광분석 연구>와 <이미징 편광분석기를 이용한 바이오나노 구조 연구> 경험을 융합해, 편광을 이용한 나노 구조체 측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캠퍼스 김동현 교수 팀의 <Gsk3 β 활성화 항바이러스 천연물 신약 개발기술>은 미국의 김백 교수를 초빙, AIDS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시험법을 도입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석학교수와의 공동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 <AIDS>에 투고하는 한편, 이를 한국생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연구 역량을 홍보했습니다. 김 교수 팀은 이 과제를 통해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하는 천연물 신약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 교수 팀은 5년 동안 총 10억 6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제캠퍼스 이동훈 교수 팀의 <달 궤도 우주탐사>는 UC 버클리대학의 로버트 린 교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사미 솔란키 교수, 뉴펀들랜드 메모리얼대학의 데니 서머스 교수, 메릴랜드대학의 피터 윤 교수 등 4인의 해외 석학을 초빙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우주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교수 팀은 달 궤도 탐사를 위한 위성 탑재체 개발과 달 주변 우주환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공동 연구 중인 UC 버클리대학이 경희대 WCU 사업단과 동일한 위성인 CINEMA로 미국 NSF로부터 과제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 2010년에는 보다 뛰어난 연구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 교수 팀은 올해 TRIO-CINEMA의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보체와 탑재체 제작과 시험, 지상국 설계와 일부 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과제에는 5년간 총 연구비 106억 9백만 원이 투입됩니다.

국제캠퍼스 전종성 교수 팀의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 모델 개발>은 미국과학한림원의 구데브 싱 쿠시 교수와 공동연구를 실시해 친환경 다수확 신초형 벼에 적합한 유용 유전자를 선정하고, 분자표지를 활용한 계통 육성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구데브 싱 쿠시 교수가 국내에서 실시한 강의와 세미나를 웹사이트에 올려 국내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다수의 논문 발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널리 알렸습니다. 5년간 연구비 10억 6천만 원이 지원되는 이 과제는 미래의 식량 위기에 대처하고 전 세계 빈곤국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창조 21' 프로젝트 최종 3개 후보 사업 선정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출범한 '창조 21'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008년 9월 접수된 28개 과제의 예비 계획서 심사를 거쳐, 발표 평가(1, 2차 종합심사)와 해외 학자 평가 등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대상으로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해 최종 심사 중입니다.

최종 후보에 선정된 3개 사업은 인문사회계열의 <미래창조 프로그램>(이동수-NGO대학원), 공학계열의 <경희 네오 휴먼케어 센터>(허의남-전자정보대학), 의학계열의 <신의학연구원>(최승훈-한의과대학)입니다.

<미래창조 프로그램>은 인간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학문적 수월성과 Global Eminence를 갖춘 21세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연구·실천을 통합한 기본 단위(Team Spirit & Study)를 구축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교수가 참여하는 팀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생은 교육, 대학원생과 연구교수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팀원 전체는 사회적 공헌을 함께 실행하며 연구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경희영예학생제도를 보완, 영예학생들을 미래창조 프로그램 복수 전공자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희 네오 휴먼케어 센터>는 디지털스포츠공학이라는 신학문을 육성, 국내는 물론 광범위한 국제적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를 활용해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제 공동강의를 개설해, 스포츠정보 분석가, 여가디자이너, 스포츠를 이용한 문화공연 기획자, 재활교정 전문가, IT 융합기술 전문가 등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의학연구원> 사업은 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의학을 창출하기 위한 야심 찬 기획입니다. <신의학연구원>은 그동안 '의과학 경희'가 축적해온 동서의학 진료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학 창출의 중심적 지위를 구축하고, 이상적인 동서협진 모형을 개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서협진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동서협진 시스템의 정보화와 산업화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창조 21' 프로젝트는 기존 분과 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연구와 교육, 실천과 교류의 장(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물론, 열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전 세계 학술기관의 전범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역과 문화를 넘나들며 미래 학문의 무한한 세계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연구 지원 제도 강화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고,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먼저, 국제 논문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재 예정 학술지 조건부 연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국제 1급/2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2008년 1천2백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9년에는 1천5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둘째, 2008년 1천2백만 원이던 신입교



수 연구비 규모를 2009년에는 국제 1급/2급 학술지에 논문을 수록할 경우 2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셋째, 연구교수 지원사업도 전년도에 견주어 3%를 인상해 연 4천5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직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술활동 지원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문학술 연구서를 출판했을 경우 최대 5백만 원, 번역서를 펴냈을 경우는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연구 지원 제도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전체 연구 실적이 2008년에 비해 30%가 늘어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교수 승진 및 업적 평가제도 개선



연구 역량 제고와 정교수 직급의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연구 역량 우수교수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재임용 및 교수업적 평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010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강화했으며, 조기 정년보장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조교수, 부교수 직급에서도 정년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자율운영에 따른 자체 승진 기준을 제정,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업적을 이루었을 경우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에 관계없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수업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학문적 특성에 따라 연구 실적 계열을 세분화했고, 교수업적 평가에 따른 연봉 차등 그룹을 'S1, S2, G' 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연봉 차등 그룹 중 최상위 등급의 비율을 확대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교수업적 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정교수 직급의 연구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기 정년보장 제도가 시행되면 부교수 이하 직급의 연구 실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earch & Recruit Committee 우수교원 32명 특채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축한 Search & Recruit Committee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에도 국내외 우수 교원들을 영입했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 교원 상시 초빙 제도는 각 캠퍼스와 학과 및 전공별 Search & Recruit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기왕의 지원-채용(Apply & Select) 방식을 탈피, 탐색-영입(Search & Recruit) 방식으로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국내외 우수 학자를 채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서울캠퍼스 11명, 국제캠퍼스 21명, 총 32명의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활기 띠는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대학 재정의 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중심이 되어,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지난해 홍삼 관련 특허 10건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술평가액 3억 5천4백만 원과 현금 출자액 1억 원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으며, (주)한방바이오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부터 한방 관련 특허 26건에 대해 73억 9억

5백만 원에 달하는 기술평가액을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추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설립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한방의 현대화, 과학화, 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한방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의 자회사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장기적으로 4~5개 자회사를 설립해 매출액 1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대학 재정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전체적인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청원연구년제 시행

지난해 제정한 청원연구년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서울캠퍼스에서 4명, 국제캠퍼스에서 3명의 교수가 2010년 1학기에 청원연구년을 사용하는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원연구년 수혜 교원은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저서, 교육 제안, 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탁월한 성과가 예상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교원의 연구 역량과 교육 수월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의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는 청원연구년은 신규 임용 이후 3년 이상 근속한 교원, 2년 이상 교무위원직을 수행하고 이임한 교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원연구년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은 경희대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계속 보장되기 때문에 승진, 연봉, 연구비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수월성위원회 신설



교육과 연구 분야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는 교육·연구수월성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교무위원회 산하 4대 위원회 중 하나로 발족한 교육·연구수월성위원회는 위원장(서울부총장)을 중심으로 총 43명(서울·국제 교무위원 및 교수의회 대표 등)의 위원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회가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항은 고가 기자재 공동관리 방안과 대형과제 수주를 위한 기획 사업을 비롯해, 교원업적 평가제도 변경, 연구 실적 제고를 위한 연구자 대상 설문 조사, Kyung Hee-KIST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연구 실적 제고를 위한 3개월간 집중 관리 전략,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설립(안), 융합연구원 설립(안) 등입니다. 교육·연구수월성위원회는 이같은 안건들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가 기자재 공동관리 방안은, 교내의 고가 첨단 기자재 현황을 파악해 교원들이 공동으로 활용, 연구력 향상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Resource Center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교원업적 평가제도는 기술 이전 및 특허 관련 업적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대내외 평가 항목 중 연구 부문의 특허(출원/등록)와 기술 이전 수입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연구 실적 제고를 위한 연구자 대상 설문 조사는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수렴,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희 Fellow’ 10명 선정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수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희 Fellow’가 지난해 10명의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2008년 첫째 해당 교수가 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 경희 Fellow는 김종희(국문), 이충기(관광), 김영동(물리), 정주호(의학), 이경태(약학), 이혜정(한의학), 권오병(경영), 최석호(응용과학), 이경엽(공과), 홍충선(전자정보) 교수입니다.

경희 Fellow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의 임명 기간은 2년이며, 3년간 연구 업적을 평가하여 재임명이 가능합니다. 임명 기간 동안 연간 3천만 원의 특별 연구 격려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연간 책임 강의(6~9학점)를 한 학기에 모두 마치면 나머지 한 학기는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수에 대한 학교의 존중을 표시하는 경희 Fellow 제도는 연구의 허브를 창출하면서 신진 학자들에 대한 멘토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5년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교수’ 채용



대학 전체의 연구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연구교수 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선발된 연구교수는 책임 강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임용 기간 동안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연구교수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희대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해당년도 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연구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교수 임용 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하고, 당해 임용 기간의 업적 심사 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임용 기간은 재임용 기간을 포함,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구 실적 기준을 충족한 연구교수는 경우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임용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교원 정년 5년 연장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원로교수들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 정년을 5년 연장했습니다.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경희학원 정관 제37조의 2와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0조의 교원 정년 연장 관련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정년이 연장된 교원의 권한과 책임은 전임교원과 동일합니다. 정년 연장과 동시에 50~60대 교수들의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정년 보장 교원들의 기여도 증진을 유도하는 한편,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외부 중진 및 원로교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목련상 첫 수상자 유명철 석좌교수, 고(故) 이성호 교수

2009년 처음 제정된 목련상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제1회 목련상은 교육 부문에서 경영대학 고(故) 이성호 교수가, 사회·대학공헌 부문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유명철 석좌교수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60주년 송년 음악회와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문적 수월성과 인류 보편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대학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목련상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먼저, 교육 부문에서는 경희 정신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빼어난 역량을 보인 강의 우수 교수를 선정하고, 둘째 연구 부문에서는 연구 실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한 교수를 선발합니다. 셋째 사회·대학공헌 부문은 학교 내외에서 사회 공헌 업적이 탁월한 교수 및 직원을 선정합니다. 제 1회 목련상은 아쉽게도 연구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연말, '학문과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원의 성과를 확인하고 대학 전체가 공유하게 될 목련상은 경희의 미래와 함께 지속되면서 자랑스런 역사를 기록해나갈 것입니다.

BK21 중간 평가 6개 팀 신규 진입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 지원하는 BK21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팀이 협약 해지되었고, 6팀이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2009년도에 새로 진입한 사업 팀은 서울캠퍼스에서 1개 팀(경영학과 김재경), 국제캠퍼스에서 5개 팀(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유창규, 동서의료공학과 조민형, 토목공학과 목영진, 컴퓨터공학과 홍충선, 전자전파공학과 서덕영)입니다.

또한 3차년도 평가 결과, 최상위 사업단(팀)으로 '핵심기초-이학2' 분야에서 물리학과(김영동)가, '핵심응용-학제간3' 분야에서 정보디스플레이학과(권장혁)가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등재지 2개, 등재후보지 6개 보유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09년도 국내 학술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가 모두 1천7백31개에 달했습니다. 이 중 대학 학술지는 182개였습니다. 2009년 현재 경희대는 등재지 2개, 등재후보지 6개 등 총 8개의 등재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부터 연구산학협력처는 부설연구소(원) 등재학술지 육성사업으로 총 8개 학술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6개가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희법학》(경희법학 연구소), 《OPEM》(한의학연구소)가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교내 등재 학술지 육성사업과 더불어 국제학술지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 대내외적으로 학문적 위상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실천 부문

Kyung Hee Global Service Corps 출범



경희대가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는 사회 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합니다. 2010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Kyung Hee Global Service Corps(경희 지구사회 봉사단)는 개교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경희대 사회 공헌의 허브가 될 이 봉사단은 지역적·지구적 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미래 대학의 전범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희 지구사회 봉사단'은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교육·연구 부문과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전문 기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 봉사단은 Global Praxis Program,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 Medical Service Program, On-line Program 등 4개 주요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Gobaal Praxis Program은 국제기구 인턴십, 해외봉사단 활동 등 대학의 교육 기능과 연구 성과를 활용한 지구적 나눔과 기여를 실현하면서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모색합니다.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은 실천인문학, 방과후학교 등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상적 교류 협력 활동을 아우릅니다. Medical Service Program은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의학계열 학생들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경희대의 사회 공헌은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급, 지식의 사회적 환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경희 지구사회 봉사단'은 지난 1월 아이티 지진 참사에 대한 거교적 성금 모금 및 긴급 구호 지원을 결정하면서 '예열기'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의 출범과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1년 상반기부터 정식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경희-유네스코 워크캠프

경희-유네스코 워크캠프(Kyung Hee-UNESCO Workcamp)는 2~3주 동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한 지역에 모여 환경 보호, 문화재 복원, 고고학 조사, 농업 및 지역사회 개발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교류 성격이 강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2009년 여름방학 기간 중 독일, 프랑스, 그리스, 터키, 폴란드 등 유럽 5개 지역에 28명의 학생이 파견되었고, 겨울방학에는 태국,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6개 지역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 자원봉사 활동의 효시로 꼽히는 유네스코의 국제 워크캠프는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어내기 때문에 국제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형태로 평가받습니다. 주로 6~9월 사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 지는데, 10~20명의 국적이 다른 젊은이들이 모여 공동생활을 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숙박과 식사는 제공되지만 각자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미래문명원에서 운영하는 '네오르네상스장학(자원봉사장학)'을 통해 워크캠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희-유네스코 워크캠프는 재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21세기 글로벌 시민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의 기회와 세계 청년 학생들과의 교류 협력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경희평화워크숍' 개최



경희대의 주도로 제정된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28년간 경희대가 추진해온 평화 관련 활동 전반을 돌아보는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을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 부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총체적으로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경희, 새로운 평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2009년 12월 3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워크숍은 회고와 전망, 실천 방안 등 3부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경희 평화 되돌아보기'는 경희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제 평화학술회의와 그와 관련된 평화활동 전반을 '세계평화'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2부 '경희 평화 내다보기'에서는 임성호 정외과 교수의 '지구화시대의 평화 패러다임 모색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넘어 성찰적 민주주의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홍기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의 '평화 활동 및 평화학 연구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3부에서는 경희대 평화 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경희대가 추구해야 할 평화 활동의 지향점이 모색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인원 총장을 비롯, 김여수 미래문명원장, 권기봉 평화복지대학원장, 송병록 행정대학원장, 임성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장, 전택수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 임정근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등 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재소자를 찾아가는 실천인문학



문과대학 실천인문학센터가 서울지방교정청과 협약을 맺고 재소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재소자들을 찾아가는 인문학은 재소자들의 갇생을 위한 교정교육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재소자 스스로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은 재활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의 한계를 넘어 자기 삶과 주변 세계를 성찰하면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공동체에 재편입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윤리의식을 복돋워주는 것입니다.

경희대 실천인문학센터는 2007년 첫 사업으로 경기광역자활센터, 노원나눔의집, 관악일터나눔자활후견센터와 협약을 맺고 저소득 소외계층,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경희대 시민 인문학 강좌'를 열었고, 2008년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15개 지역에서 '경희대 시민 인문학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인문학 강좌는 그동안 대학이라는 제도교육 속에 매몰되어 있던 인문정신을 사회 속에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연구·교육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 내의 인문학 발전을 자극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는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1학기 총 12주,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 총 12주로 진행되었으며, 잔형기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출소 예정자들이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교육과목은 문학(8주), 역사(12주), 철학(12주), 예술(8주), 글쓰기(8주)로 구성되며 과목별로 강의 목표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문학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체화하여 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철학은 개개인의 삶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글쓰

기 과목은 수강생들의 주체적 참여를 유도해 자신감 및 삶의 의지를 체득하고 자활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규강의 강사진은 경희대 문과대와 교양학부를 중심으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춘천교대 등에 재직하는 교수 이외에도 학예연구사, 도서평론가, 연극인, 시나리오 작가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16차례의 교양 특강이 이어졌는데,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이사, 공지영 소설가, 정호승 시인, 도종환 시인,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등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재소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Kyung Hee Global Praxis 60 경희 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동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12명의 어르신들이 학생들과 짝을 지어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엮었습니다. 김윤선 학생 외 5명(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 전공 및 노인복지·상담연계 전공)이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총 17주 동안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 각자의 '파란만장한 삶'을 구술 정리해 어엿한 책으로 만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노인'을 대상으로 자아통합을 위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yung Hee Global Praxis 60: 경희 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Kyung Hee Global Praxis 60: 경희 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전공 연계 사회봉사 활동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공모,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선정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의 실행에 따른 실무와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21개 팀이 공모, 최영창 외 8명의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체육대학 특수체육 동아리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앞에 소개한 김윤선 외 5명과 배수진 외 9명의 '어울림: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상을, 권성희 외 2명의 '회기동 문화지도 프로젝트: 회기동 문화 콘텐츠 찾기 프로그램' 외 2팀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대상 지역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실질적 효과와 함께 경희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Kyung Hee Action for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

서울캠퍼스 주변 회기동 일대의 행정기관,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일상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습니다. 2009년 8월 회기동주민센터와 회의를 갖고 세 가지 사업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간판 정비, 벽화 골목 지정, 문화광장 조성, 클린 캠페인 등 '경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독거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상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주민자치를 위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상호 협력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별숙제방'과 연계해 교육 멘토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지도 및 특별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과 지역의 홀몸어르신이 1:1로 결연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력 봉사, 해비타트, 의료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일상적 교류 활동도 병행됩니다. 주민자치학교,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양

강좌, 주민센터 행정 관련 컨설팅 등 지역사회의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가동됩니다. 이같은 사업의 실현을 위해 2009년 12월 경희대와 회기동 주민자치위원회, 회기동주민센터, 경희대 민·관·학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습니다.

Kyung Hee Action for Community Partnership Program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 상생하는 사회 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것입니다.

경희평화봉사단 러시아 연해주 봉사활동



교수, 직원, 학생, 의료원, 동문 등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경희평화봉사단(Global Praxis 60: Kyung Hee Peace Corps)이 연해주 고려인 마을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009년 8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 동안 130여 명의 경희인들이 러시아 연해주 로지나 마을에서 고려인 정착촌 건립 지원, 다민족 다문화 평화축제 개최, 생태계 탐사 및 생태마을 조성 컨설팅, 의료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개교 60주년의 의미를 지구적 사회 공헌 차원에서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이 해외 봉사활동은 일차적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Global Eminence'를 지향하는 인식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의 성격도 남달랐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비극의 현장인 연해주 고려인 정착촌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향후 사회 공헌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한 공감대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KBS의 후원 등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구적 실천을 구현하는 경희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 정착촌 건립 지원 사업은 벽화 그리기(공동주택, 어린이집 벽화 제작), 공동주택 개보수 및 놀이터 조성, 경희어린이집 '꿈틀' 건립 등으로 이루어졌고, 다민족 다문화 평화축제는 태권무, 현대무용, 응원단 공연에 이어 120여 개 소수민족 총회를 개최, 고려인들이 고향에 정착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태계 관련 프로그램은 정착촌 주변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생태관광 관련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의료봉사는 내과, 안과, 초음파, 한방, 치과 등의 부문에서 총 1,500여 건의 진료가 이루어졌고, 약품과 안경, 한방엑기스제, 틀니 등도 제공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선상에서는 지속적인 해외 봉사 활동 방안, 교육·연구와 연계된 학술기관 고유의 차별화된 봉사 프로그램 방안, 안정적인 사회 공헌 기금 조성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희 의료봉사 연합 동아리 원더스' 아산청년봉사상 수상



경희 의료봉사 연합 동아리 '원더스'가 2009년 11월 25일,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1회 아산상 청년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산상은 송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해온 사람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봉사 연합 동아리 원더스(WONDERS)는 의대, 한의대, 간호대, 치대 등 4개 단과대학의 영문 앞 글자(Western, Oriental, Nursing, Dentist)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대학의 사회봉사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재학생들의 봉사정신과, 졸업생들의 지속적 관심과 후원이 결합된 원더스는 올해로 42년째를 맞는 최장수 봉사단입니다.

니다. 원더스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 계층을 위해 월 1회 의 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현재는 월계복지회관), 연 2회 무의촌 장기 봉사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동아리 회장 이배열(의학 08) 학생은 “상금 1,000만 원으로 찜질기구와 물리치료기계 를 구입해 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100인의 몰래 산타가 떴다!”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100인의 몰래 산타 가 떴다!’ 가 2009년 12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경희봉사단 기획단, 네오르네상스장학생회 프런티어, 경희꿈꾸는학교가 공동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인과 단체, 연인 등으로 구성된 145명의 자원봉사단이 산타가 되어 동대문 지역 53가구 110여 명의 어린이를 찾아가 선물을 나눠주며 어린이들의 소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외된 이웃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눔과 소통의 문화를 전파한 이 행사는 경희대뿐 아니라 동대문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푸른시민연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등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봉사 프로그램의 모델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전 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25일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 시청각실과 사색의 광장에서 ‘차별없는 세상, 우리 캠퍼스에서부터!’ 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고 이어 학생들이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옥순 씨는 특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실생활에서 수 시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사례, 장애인을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했고, 이어 학생들 이 지체, 시각, 청각 장애 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인식 개선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2009년 11월 25일,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된 특강이 실시되었습니다. 11월 25일에는 청운관에서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원영 씨가 장애를 극복하고 학업을 계속한 과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을 내용으로 강의를 했으며, 12월 3일 에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소장 김종배 박사가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 한 인식 개선과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방향’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서울캠 퍼스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과의 캠프활동, 간담회, 장애인권 세미나, 캠페인, 도우미, 장애 학생 멘토링 등에 참여할 장애 학생 지원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경희대는 2009년 11월 장애인인권포럼이 발표한 장애인 학생 지원 체계 조사에서 전국 23개 대학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교육부 평가에서는 서울캠퍼스가 장애인 학생 지원 체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인권포럼 조사는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 여, 각 대학의 입학 전형과 학습도우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조사해 이를 점수화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습니다.



의과학(Medical Science) 경희

의료·의학계열 재도약 위한 비전 수립



부속 의료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료·의학계열 비전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과학 경희’의 이미지를 각각의 위치에서 꾸준히 다져왔던 경희의료원과 동서신의학병원, 그리고 의학계열 단과대학 사이에 공조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경영 및 발전 전략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제1차 의료기관 비전설정전체위원회를 시작으로 4차례의 전체위원회를 통해 외부 컨설팅업체(Elio Company)를 선정하고 의료기관 통합일례회의, 비전실무회의, 의료기관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과학 경희’의 세계화를 위해 세 가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첫째,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 종합의학공동체의 협력 관계 위에서 기초과학과 생명공학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의료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인간 중심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창조하면서 특히 암, 혈관, 대사질환 등 중증질환 분야에서 첨단 의술을 선도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 명성과 석학들을 네트워크화하는 Global Medical Collaborative를 구축, 진료와 연구, 교육과 사회 공헌을 아우르며 의·과학 경희의 세계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정부정책, 급변하는 의료 환경 등의 거시적 분석을 통해 미래 의료산업의 바람직한 접근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의료·의학계열의 경영 안정화 및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부속의료기관과 의학계열 단과대학, 그리고 설립 준비 중인 제3의료원이 연동되어 경희 의학의 브랜드 가치가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의과학연구원 출범

경희의료원 내에 8개의 산하 조직으로 구성된 의과학연구원이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동서신의 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한약물연구소, 내분비연구실이 통합 관리되어 효율적이고 보다 활성화된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체계적인 임상 연구 인프라입니다.

동관 9·10층에 약 200평 규모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중앙실험실 및 동물실험실의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검체은행을 설립, 그간 내분비 연구실과 각 과별로 보관해오던 검체를 통합 보관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구 기자재를 도입하고, 산재해 있는 연구기자재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물적 확충과 함께 인적 자원도 충원합니다. 임상 연구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임상 연구 fellow 제도를 활용하면서 균형감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의과학연구원의 활동이 본격화하면, 단기적으로 논문 및 기술 개발 분야의 연구 성과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진료 역량이 향상되어 환자 유치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임상 연구자를 양성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임상 연구 그룹을 육성하고, 경희대의 종합의학 시스템과의 창조적 협력을 유도해 경희의료원과 동서신의학병원, 제3의료원(가칭)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과학연구원은 산하 연구소뿐 아니라 의료원 소속 전체 임상교수의 수준 높은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수의 창출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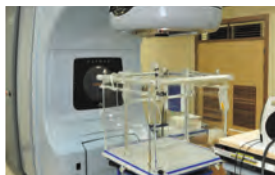
의생명과학원 '글로벌 의생명 네트워크' 구축

새로 출범하는 의생명과학원은 의약학 7개 분야, 유관 의생명 분야, 인문사회과학과 역사철학 분야가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상설기구인 이 원탁회의는 학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생명 분야의 융합 연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서로 연계시키면서 미래 의학의 지평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의생명과학원은 원탁회의를 매개로 신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융합 연구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통합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의생명과학원은 임상과 기초는 물론, 관련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통합 교육과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차세대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망 분야의 핵심 기초연구를 집중 지원,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임상 중개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생명과학원은 의생명 분과 학문과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의생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대내적으로는 임상 교육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 '의생명 경희'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형가속기 등 첨단 의료장비 도입



'작지만 강한 암센터'를 지향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암센터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토모테라피, 로봇수술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데 이어 PET CT와 선형가속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기존의 PET CT는 하루 검사 능력이 8건이었던 데 비해 신규 도입한 PET는 하루에 12건의 검사를 소화할 수 있어, 이용 환자의 적체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선형가속기는 기존의 토모테라피와 연계 운용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 환자 유출을 막고 신규 환자를 확대 유치해 국내 최고의 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사선종양학과 운영에 필수적인 선형가속기를 도입, 악성 종양은 물론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양성 종양 치료도 가능해졌습니다. 경희의료원과 동서신의학병원은 신규 장비와 새로운 치료법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나갈 것입니다.

의료기관 통합월례회의 의료기관장회의 시행

의료·의학계열의 소통과 창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통합월례회의 및 의료기관 기관장 회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장 주재 하에 열리는 의료기관 통합월례회의는 의료원장과 각 병원장뿐만 아니라 범대학 차원의 협력을 위해 정책부총장과 재정예산원장, 경영대학 자문교수, 거버넌스 기획위원들도 참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학계열 교수회의 의장과 경희의료원 노조위원장이 구성원 대표로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지난해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 월요일에 열리는 통합월례회의는 경영 실적, 현황 분석, 중장기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의료기관 기관장회의도 총장 주재 하에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는 의료원장 및 각 병원장, 정책 부총장이 참여합니다. 의료기관장회의의 주요 목표는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의사 결

정 문제를 신속하게 토의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논의합니다.

의료기관통합유희회의 및 의료기관 기관장회의를 통해 대학과 의료기관이 현황과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통합 거버넌스의 토대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제3의료원 설립 기사화



경희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제3의료원(경희웅인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의료원 설립 기획팀이 발족되어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기본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의료원이 설립되면 우선 경희대의 종합 의학계열과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상과 연구, 교육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면서, 산학 협력과 국제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조직과 운영은 슬림화되어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것입니다.

암 등 중증질환 치료가 주를 이루는 첨단 병원으로 특성화될 제3의료원은 의학계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캠퍼스의 기초과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적 잠재력을 첨단 의료 시설 및 인력과 결합, 관련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의·과학 경희'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격상시킬 제3의료원은 인류의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창학 이념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경희의료원

내분비대사센터 · 자연요법센터 개설

경희의료원은 내분비대사센터와 자연요법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치대병원과 동서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등 2009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의료서비스 부문 2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분비대사센터는 의료원 서관 2층에 진료실, 예진실, 교육·상담실, 당뇨합병증검사실, 갑상선 초음파실 등을 집중 배치해, 그간 환자들을 불편하게 했던 복잡한 동선(動線)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갑상선암 등 내분비대사 질환 환자를 위한 양질의 원스톱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와 협력 및 동문 개원의가 위탁한 환자를 전담하는 진료협력센터도 개설했습니다.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진료협력센터는 환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방병원에는 '자연요법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기치로 내세운 자연요법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공요법실, 뜸요법실, 경락요법실, 좌훈실, 장세정실 등으로 구성된 자연요법센터는 수천년 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다양한 자연요법으로 인체의 자기치유력을 회복시켜주고 있어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치대병원과 동서건강증진센터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리모델링을 실시, 고객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개원 40주년을 앞두고 의료원 본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응급센터동을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 암치료 다학제간 시스템 구축



동서 의학의 융합을 통해 '신의학' 창조를 지향하는 신개념 종합병원 동서신의학병원은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 개방, 연구 분위기 진작, 제반 사업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암 중증환자의 완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듯이 방사선종양학과를 개설하고 첨단 치료 장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학과를 새로 설립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암 진단에서 완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해외 환자 유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외국 환자 유치 국내 1위'를 목표로 설정, 국제 의료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2020년이면 해외 환자 진료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다각화된 수익 창출 모델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한방병원 한약제제 출시

한방병원은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제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에서는 매주 회의를 개최, 임상진료과의 개발 제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 과정에 적용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홍삼총명탕, 안장산, 보심단, 감비교, 보골공진단, 청안수 등 6개의 신제형을 출시했으며, 한약물의 근거중심의학적 제제 연구를 통해 5개의 신약을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계와 경희

세계시민포럼(WCF), 세계시민청년포럼(WCYF)을 비롯한 각종 국제 학술대회와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경희'가 경희대의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GSN이 본격 운영 되면, 경희는 지구적 학술공동체의 중심으로, 명실 공히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World Civic Forum 2009



세계와 경희

WCF 2009 : '국제화 경희'



인류평화와 복지, 지구 정의를 모색하는 국제포럼이자 지구협력체(Global Institution)이며 지구적 실천의 주체인 '세계시민포럼(World Civic Forum, WCF)'이 지난해 5월 창립되어 첫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WCF 2009는 경희대가 유엔 경제 사회국과 손을 잡고 기획한 것으로, 지구적 의제의 해결을 통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고등교육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정부, 기업,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전 지구적 포럼입니다.

지난해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회 WCF의 대주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행성을 향하여(Building Our Humanitarian Planet)'였습니다. WCF가 첫 출범하는 자리에는 유네스코, CoNGO(유엔NGO협의체), 미 펜실베이니아대, 미 프린스턴대 우드로 윌슨 스쿨 등 12개 기관 파트너와 한승수 대한민국 총리, 샤 주앙 유엔 사무차장, 한스 도빌 유네스코 사무총장보, 저우치핑 중국 북경대 총장, 폴 케네디 미 예일대 석좌교수 등 모두 57개국 3천여 명의 인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WCF는 경희대의 국제적 위상을 한 차원 끌어올린 학술대회였습니다. 개교 이래 60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대학의 세계화·국제화의 결실이자,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경희대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350편에 달하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WCF 개최 기간 동안 국내의 언론사가 107건에 이르는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청년 문화의 발상지 WCYF 2009



전 세계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청년학생다운' 국제적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5일부터 4일간, 국제캠퍼스에서 WCF와 병행해 개최된 제1회 '세계시민청년포럼(World Civic Youth Forum, WCYF)'은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지구적 현안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청년학생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지적·문화적 광장이었습니다.

40개국 9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한 WCYF 창립대회는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CoNGO 의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평화, 환경, 개발, 인권, 성, 문화 등 6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304명이 261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포럼과 함께 참가 학생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프로그램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태권도 시범, 비보이, 힙합, 사물놀이, 도전 세계 골든벨, 축하 음악회 등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웹사이트에 WCYF가 검색어로 등록되었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세계 대학생들이 포럼과 축제에서 얻은 생각과 체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WCYF는 세계 대학 청년 문화의 긍정적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WCF와 함께 경희대 구성원들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공유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격년제로 열리는 WCYF는 '지구촌 청년 문화의 발상지'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Global Collaborative 2009

2006년 여름방학부터 개설된 Penn-Kyung Hee Collaborative가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Global Collaborative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뿐 아니라 미국의 콜게이트대, 미네소타대, 프린스턴대, 중국의 북경대, 영국의 킹스칼리지 등 해외 우수대학과 유엔, CoNGO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프로그램이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2008년 유엔과 CoNGO 인사들의 현장 경험과 교수들의 이론을 결합한 UN & INGOs 트랙을 추가해, 다른 대학의 서머스쿨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대학은 물론, 참여 학생의 국적 및 출신 학교가 다양해졌습니다. 2007년 전체 참여 학생의 30%를 차지했던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38%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타 대학 학생들의 참여도도 늘고 있습니다.

Global Collaborative 2009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4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9개의 학외·주말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또한 굿네이버스와 아름다운가게 등 NGO 단체에 12명의 학생이 인턴으로 파견되어 시민운동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Global Collaborative 2009는 국내외 대중매체에 30회 이상 노출되어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Global Collaborative는 경희대의 창의적인 국제화 정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지구적 학술공동체'

Global Studio Network(GSN)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육과 연구, 사회 공헌, 문화예술의 거점 도시에 스튜디오를 세우고 이를 확상으로 연결해 전 지구적 학술공동체를 형성하는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GSN은 대학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경희대가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이자 교육기관입니다.

GSN은 혁신을 거듭하는 테크놀로지에 바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세대 e-learning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연구, 교류와 협력 부문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산재한 지적·문화적·실천적 성과를 첨단 정보통신 기술로 결합시키는 창조적인 지식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GSN 스튜디오와 화상 회의실을 설치하고, 국제캠퍼스 국제대학과 공과대학에 화상강의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 GSN 홈페이지(www.gsn.ac.kr)를 개설했으며, 인터넷 방송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 제작 인턴팀(Global Video Frontier, GVF)과 함께 영상물 통번역 인턴팀은 이미 구성되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GSN 시스템이 본궤도에 오르면, 전 세계 학자와 학생, 전문가, 활동가, 기업인, 예술가,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 교류할 수 있습니다. GSN을 활용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화상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지구적 공헌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GSN이 전 세계의 학술적·문화적 성취를 수렴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대의 우수한 강의와 연구 성과를 전 세계로 내보내는 확산의 채널이기도 합니다.

GSN은 올해 뉴욕과 베이징에 스튜디오를 개설하고,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외 스튜디오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경이면 국내외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정적 단계로 접어들어, 경희대와 함께 세계적 학술공동체로 뿌리내릴 것입니다.

경희대와 해외 대학에서 두 개의 학위 동시 취득

복수학위 제도란 경희대와 해외 자매대학에서 학위 취득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경희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외국의 협력 대학에서 학사나 석사학위를 하나 더 받는 것입니다. 복수 학위를 취득하려면 두 대학에서 각각 2년간 재학해야 하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4년 안에 두 대학에서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학위제를 선택한 학생은 원어인 수준에 가까운 언어 능력과 타 문화에 대한 비교 문화적 관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수업료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도 주어집니다.

복수학위 제도는 경희대의 국제화 전략 프로그램이자, 해외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편입학(장학) 제도이기도 합니다. 경희대는 일본의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동경국제대학 등과 협정을 체결해, 현재 정경대학 학생 1명이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호텔관광대의 경우 2명의 학생이 휴스턴대학에 재학 중이며, 올해 3명의 학생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 메지로대학, 중국 다롄외국어대학, 러시아 극동국립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카자흐스탄 카작 아블라이칸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와 협정을 체결해 현재 본교 재학생 7명을 파견하고, 외국 협정 대학 소속 학생 17명이 경희대에 재학 중입니다. 대학원의 경우 프랑스의 에콜폴리텍, 영국 노팅엄대, 카자흐스탄 아블라이칸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와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외 파견 학생, 외국인 유학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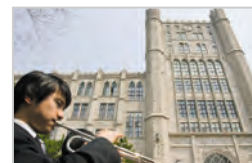


지난해 전체 교환학생 수가 1,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해외로 파견하는 교환학생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공 특성을 살린 대규모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해외로 파견하는 교환학생도 지난해에 견주어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캠퍼스에서는 지난해 9개 단과대학에서 31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에는 세계 우수 대학으로 203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중국 프로그램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강의와 주 15시간 이상 중국어 연수를 겸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시행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북경대학과 경제·무역학 분야를 특성화한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총 44명의 학생들이 수학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계와 동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캠퍼스에서 230여 명의 학생들이 미국, 영국, 태국 등 6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현지 체험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하게 연수는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도교수가 인솔하는 Faculty-Led 프로그램을 확충, 보다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경희대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09년 2



학기 현재 총 1,838명으로 전체 정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도 다양해져, 올해 40여 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조건부 입학제도와 9월 입학제, 그리고 편입학 전형(국제)은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각 학과와 관련 부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선의 유학생 선발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순수 외국인 장학제도를 활성화하여, 총 236명의 유학생들이 5억 원 규모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높은
외국인지원센터(CISS)**



서울캠퍼스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 Scholars, CISS)는 급증하는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순수 외국인 입시, 외국인 학생 비자 및 체류 관리, 외국인 학생 장학, 외국인 학생 기숙사, 외국인 학생 문화 체험, 외국인 학생 취업 지원, 외국인 학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 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유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과 외국인 조교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이드북을 통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어,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단대별 '7+1 제도' 검토**

경희의 역사와 전통인 국제화를 심화, 확대하기 위해 교무위원회 산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학의 국제화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전통적인 장소로서의 캠퍼스, 배타적 학문 세계로 압축되는 기존 대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실과 가상, 기초와 응용, 이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연구, 교육, 실천 부문에서 세계적인 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교내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할 때 관련 외국인 교원을 적극 초빙할 뿐만 아니라, 참석한 외국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외국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교수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이 졸업하기 전, 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7+1 제도'를 단과대별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의 외국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Global Collaborative
Abroad Program
(해외 집중 전공 연수)**

해외 대학의 선진 프로그램과 국내 우수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Global Collaborative Abroad Program(해외 집중 전공 연수)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의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중국 북경중의약학대학에 25명, 타이완의 대만중국의약대



학에 25명 등 모두 50명을 파견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 집중 전공 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과 : 파견 대학 및 파견 학생 수) 주거환경학과 : 홍콩의 홍콩대학 32명, 정보디스플레이학과 : 프랑스 에콜폴리텍대학 30명 및 타이완 군산대학 55명, 국제학부 : 미국 워싱턴센터 8명, 토목공학과 : 미국 뉴저지대학 20명, 응용화학과 : 호주 퀸즈랜드대학 20명, 디자인학부 : 영국 런던대학(골드스미스) 20명, 연극영화전공 :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10명, 간호과학대학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10명, 사회과학부 : 영국 킹스칼리지 22명.

해외 집중 전공 연수 제도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파견 전후로 나누어 비교 측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 체결을 확대하면서, 양교 교원이 함께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전공별로 인솔 지도교수가 연수 학생들을 현지에서 밀착 관리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외 우수 교원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재학생과 외국 학생들에게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조와 도약



서울과 국제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을 중심으로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행정, 복지, 연구와 교육 인프라, 대학문화 등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모든 기능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소통과 창조'의 대학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 부문

대학자체평가 (O & P Review)



지난해 새로 도입한 대학자체평가(Organization & Program Review, O & P Review)는 평가의 주체에서부터 목표, 범위, 방법, 시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여타 대학 평가와는 차별화된 평가 시스템입니다.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기존의 대학평가는 평가 지표가 획일적이고 등급 위주의 결과에 치중, 대학의 총체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개발한 데 이어, 8~9월 단위 부서 정책 감사와 연계해 전반적인 자체평가를 수행했습니다. 176개의 평가 대상 단위부서는 각자 선택한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단위부서와 함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도 새로운 평가 시스템으로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습니다. 자체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는 해당 부서와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하면서 자율운영 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는 정보 공시 항목을 위주로 경쟁 대학과 비교하여 경희대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했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는 성과지표 부문(90%), 여건지표 부문(10%), 정책감사 부문으로 나누어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에서는 중점·자율과제(90%)와 부서 일반만족도(10%), 정책감사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교육과 연구, 사회 공헌, 경영 등 자율운영 전반에 대한 대학자체평가 결과는 단위부서, 대학(원), 단위 사업, 대학 본부가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 과정 전체가 전산화되어 시스템이 보다 공고해지고, 평가 결과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대학자체평가 시스템은 자율운영을 통해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려는 경희대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KH Spirit & Pride 사업 연구역량, 교육수월성, 구성원 만족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학,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며 자긍심을 갖는 대학. 이같은 경희의 미래상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H Spirit & Pride 사업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내에 연구 역량, 교육 수월성, 구성원 만족도, 사회적 평판도 등을 동시에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구(60%), 교육 및 평판도(30%), 구성원 만족도(10%) 부문에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고, 단기와 중장기(3년 이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단과대와 대학원 등 단위부서별로 자유 공모를 통해 개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자율운영 체제의 강점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연구 우수교원 확보, 우수 연구그룹 지원, 연구 인프라 활성화, 특별 장학사업 등 7개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으며, 교육 수월성 및 졸업생 평판도 향상 영역에서는 7+1 제도, 졸업능력 인증 요건 강화, 우수 졸업생 이미지 구축, 대학원 우수강의 지원금 사업 등 11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 점검 담당 조



교를 배치하고 학사 지원 및 행정 업무 안내 데스크를 개선한 데 이어, 학생생활지원존을 설치하는 등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KH Spirit & Pride 사업은 자율운영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연구와 교육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대학 감사 자율운영체제 조기 정착 지원

거교적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자율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감사의 방향과 틀을 바꾸었습니다. 지난해 감사는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대학자체평가(O & P Review)와 연계해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컨대 거교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감사 결과가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구체적 변화로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조직·업무 리스크 원천관리와 함께 양 캠퍼스의 동일 부서 간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담당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감사의 방향과 틀에 변화를 준 결과, 우선 거교적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대학자체평가(O & P Review)와 연계하여 성과지향적 정책 감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율운영체제의 조기 정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구성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함양되었으며, 넷째, 업무 표준화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자율운영 제도 실시



“경희대는 총장이 42명입니다”. 2009학년도부터 42개 대학(원)·부속기관이 자율운영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운영 제도는 이전까지 대학본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각각의 자율운영 기관이 새롭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 아래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선진적 시스템입니다.

대학본부의 업무가 조정된 만큼, 자율운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과대학(원)은 학부·학과·전공 단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자율예산을 편성 집행하며, 학사 행정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책임집니다. 자율운영에 대한 평가는 단위기관의 자체평가와 대학본부의 평가로 이원화되는데, 대학본부는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자율운영기관은 보상을 하고, 후발 분야를 견인하기 위한 투자를 시행합니다.

자율운영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단과대학(원)별로 교수 업적 평가, 교원 채용, 공간 조정 등에 관한 자율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자율운영위원회·인사소위원회 등을 구성했습니다. 단과대학 학사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사 전담직을 충원했으며, 조교의 업무를 교육과 연구 지원으로 한정해 조교의 업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자율운영 제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면, 각 단위기관들이 자체 추진해온 특성화 전략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학부·학과·전공 단위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은 물론, 행정의 전문화, 구성원 만족도, 졸업생 평판도까지 고루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통과 참여, 열정과 창조 의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자율운영 제도는 세계적 명문 대학, 즉 '학문과 평화의 전당'으로 도약하는 경희의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평가와 보상, 지원 체계 합리화



평가와 보상, 지원체계의 합리화는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동기 유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난해 11월 직원의 인사고과평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전 구성원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인사 정책과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인사정책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필수적 요건입니다.

아울러 직원 교육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면평가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고과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구성원의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010년에는 직원 교육평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업무 실적이 뛰어나거나 학교 발전에 공헌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도를 마련하고, 인사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노동조합을 비롯해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인사정책과 제도 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분명해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직의 혁신과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교직원 특별승진제도 시행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지 2년 이상인 교직원 중 최근 2~4년 사이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특별 승진시키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업무 실적과 다면평가 결과를 놓고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교직원 특별승진제도는 업무 혁신과 행정 발전을 꾀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승진 및 승급은 그 효과가 크고, 또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 혹은 본인 자청도 가능하며, 대상 인원은 학년도별, 캠퍼스별 승진 대상자의 10% 이내로 하되, 학년도별, 캠퍼스별 2명 이하로 합니다. 단,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기본에 충실한 대학, 창의와 화합의 미래 창조,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분권과 자율의 대학 행정,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한 캠퍼스 구현. 2009년 4월부터 추진해온 교직원 교육 목표입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기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정 기반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CS 교육을 실시했고, 직원들이 자기주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무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국내외 대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자기개발을 통한 성취감 증대 등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대학 행정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날 것입니다.



전문행정추진위원회 구성



전문행정 관련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행정추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매주 2회, 양 캠퍼스별로 실무위원회를 열어 1차 전문행정추진위원회가 제출한 1차 보고서(안)를 토대로 심화 연구에 착수, 대학 행정 쇄신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인사제도 관련 세부 과제는 채용 프로세스 보완, 모집 방법의 다양화, 채용 직군 다양화, 직원 전환 배치 개선, 평가 및 보상 체계 보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수인재 선발과 공정한 인사권의 확립, 그리고 효율적 인력 운영이 기대됩니다. 교육훈련 체계와 교육훈련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진행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계층(직위)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무 전문가도 아울러 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운영

자금 관리 업무와 은행과의 전산자료 교환이 필요한 각종 업무에서 자동화·효율화를 꾀하고자 통합자금관리시스템(BICNet System: Bank In Company Network System)을 도입합니다. 시스템 가운데 계좌·법인카드 마스터 자동화, 은행 거래 내역 전표 처리 자동화, 자금 입금 및 전표 처리 자동화, 법인카드 한도 실시간 관리, 이체자료 예금주 조회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법인카드 영수증 전자 증빙 활용, 법인카드 관련 조회 기능 전 부서 부여,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 전표 자동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BICNet시스템은 대학의 종합정보시스템과 은행뱅킹시스템을 연결하여 실시간 금융 관련 자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금 관리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부문

‘경희어린이집’ 개원

2010년 3월 경희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교원과 직원 그리고 대학원생의 영유아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 환경과 발달 과정에 걸맞은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병설 경희유치원 내 1층에 자리잡은 경희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등 총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증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본교 교직원 및 대학원생, 병설 기관, 지역 주민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어린이집은 전문 경영이 가능한 시설장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 비품, 교재 교구 등은 대학에서 제공합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하며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경희어린이집은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직원 보건복지 프로그램 확대 실시



지난해 2월부터 재직 교직원과 직계가족, 퇴직 교직원과 배우자가 경희의료원 등 부속 병원을 이용할 때 이전보다 확대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건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직 교직원의 장인과 장모, 친정 부모가 의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직 교직원의 의료비 감면율을 의료원 직원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년 및 20년 이상 근속 명예퇴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동문 수준의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교비 예산을 지원해 재직 교직원의 추가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기본 건강검진을 할 때 추가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무위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를 보완해 교직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적의 캠퍼스 환경 추구하는 복지추진위원회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회 서울·국제 통합복지추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복지추진위원회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통근, 통학버스)을 교체했으며, 교직원 식당 집기와 비품을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추진위원회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시행 방법을 마련합니다. 한편 학생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복지추진위원회는 구성원의 불만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최적의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단체협약 복지 관련사항 상향 조정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지 혜택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경희의료원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했고, 7월에는 콘도 회원권 6구좌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2010년에는 직원 직계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인원 제한을 폐지하며, 직원 직계 자녀 타 대학 입학 축하금을 현재의 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교직원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봄, 가을 합동체육대회를 실시하며, 직원들이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40명(서울 20명, 국제 20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교직원들이 대학 발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신뢰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학의 주요 위원회에 조합이 기능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연구·교육 인프라

캠퍼스 마스터플랜

경희대의 캠퍼스 지도를 변화시킬 마스터플랜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교육과 연구, 문화와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공간과 아울러 지역과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캠퍼스를 지향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는 친환경 공간으로서 전통과 학풍이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국내 최고의 캠퍼스를 구현합니다.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서울 캠퍼스는 현재 모습과 크게 달라지고, 국제캠퍼스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신갈호수에 이르는 벨트가 새롭게 변모합니다.



서울캠퍼스 : 자연 + 전통 + 창조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세 가지 기본 방향, 즉 '자연의 건축적 확충 : 공원 속의 캠퍼스', '지역의 전승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캠퍼스', '창조적 정신의 발현 : 세계와 함께하는 캠퍼스' 라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녹지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캠퍼스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개교 60년 전통을 캠퍼스에 녹여내며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울캠퍼스는 녹지를 거의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1단계 마스터플랜의 초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3개 단과대학과 글로벌 타워를 신축하고, 문화예술 시설, 학생과 교직원 복지 편의시설, 체육 시설도 함께 들어서는데,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의과대학관과 글로벌 타워, 이과대학관은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주변에 세워지고, 현재의 대운동장 자리에는 대규모 지하 주차장과 복지·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열악한 보행 환경도 재정비합니다.

산학 협력을 위한 공간 확충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점인 글로벌 타워를 신축해 경희가 추구하는 국제화 정책의 센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외에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복지회관 개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 '글로벌 경희' 의 허브 구축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은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연구', '나눔과 봉사, 기여의 지구적 실천' 이라는 21세기 미래 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캠퍼스를 새롭게 조직화하고, 캠퍼스 내의 자연 환경을 적극 살리면서, '글로벌 경희' 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세 가지 공간 재창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캠퍼스 공간의 재조직화를 통해 학문적 권위를 표상하는 캠퍼스 중심축을 새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타 공간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둘

째, 캠퍼스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캠퍼스를 둘러싸고 있는 구릉이나 호수 같은 자연환경이 캠퍼스 내의 자연 요소와 결합시켜 중앙도서관에서부터 신갈호수에 이르기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캠퍼스 안팎을 ‘녹색 벨트’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화 전략은 캠퍼스를 다양한 산학 협력과 국제 교류 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관 후면에 대학·정부·기업 간의 산학 협력을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또한 국제문화교류단지를 조성하여 경희대의 창학 이념인 인류의 평화와 공영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합니다.

국제캠퍼스는 국제문화교류단지 외에 복합연구단지, 교육시설단지, 스포츠복합단지 등 크게 네 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이 진행됩니다. 복합연구단지에는 제3의료원이 신축되고 세계적 수준의 의과학 및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 연구 개발 클러스터 등이 들어섭니다. 또한 산학협력관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 등을 유치해 신개념 복합 산학연구 단지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시설단지는 기존 도로를 재정비하고 보행자 중심의 활동 공간과 동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1인당 교육시설 면적이 현재 14㎡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나, 수준 높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이 갖춰집니다.

스포츠복합단지는 분산된 시설들을 집약해 활용도를 높이고, 유엔 평화공원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휴게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포츠복합단지에는 종합운동장 및 야구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이 들어섭니다.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은 2014년 개교 65주년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 캠퍼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울캠퍼스의 선동호와 주변 광장에서 출발해 경희인상(像)과 선금교를 지나 미술대학에 이르는 숲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재정비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문화 공간인 ‘걷고 싶은 거리’는 경희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될 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품격을 한 차원 끌어올려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선동호와 주변 산책로는 ‘꿈꾸는 공간’을 테마로 새롭게 꾸며, 희망과 도전, 미래 비전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융합의 공간’인 벽천에서 선금교 구간은 경희 60년사와 함께 지식의 사회 환원과 새로운 정신적 가치 창출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금교에서 미술대 야외 조각장에 이르는 거리는 ‘사색과 창조의 공간’으로 그림의 미학을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캠퍼스는 정문에서 중앙광장에 이르는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캠퍼스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을 구축,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녹색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중심의 동선과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도로부터 정비했습니다.

녹색 캠퍼스 외에 정체성과 매력, 정서와 활기가 넘치는 캠퍼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간을 ‘지혜의 거리’, ‘비전의 거리’, ‘자유의 거리’, ‘도약의 거리’로 구분했으며, 여기에 ‘희망의 공간’, ‘창조의 공간’, ‘소통의 공간’, ‘열정의 공간’, ‘화합의 공간’, ‘평화의 공간’을 연계시켜 이

아기가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국제캠퍼스의 걷고 싶은 거리는 국제캠퍼스 마스터플랜의 공간 구성 목표인 조직화, 친환경화, 글로벌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테마 공원' 이 기도 합니다.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의실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강의실과도 연결해 국제적이고 입체적인 공동 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해외 학자를 섭외하는 데 드는 시간과 경비, 노력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201호에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GSN) 화상회의실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GSN 내에 스튜디오 및 화상회의실을 설치했으며, 국제캠퍼스 국제대학과 공과대학에는 화상강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국제학부 펠토넨 교수가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위치한 유럽대학원대학교(EUI)의 크라토코빌 교수를 화상강의에 초청하여 GSN을 통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크라토코빌 교수의 화상강의는 GSN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됐습니다.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세계적 석학의 최신 지식과 지구촌의 생생한 문화예술 현장을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석학이나 외국 학생들과 쌍방향 교류도 한층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우수한 해외 콘텐츠를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대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상회의 및 화상강의 시스템은 GSN과 연계되어 경희대가 선도하는 지구적 학술공동체를 형성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캠퍼스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주 진입로와 주변 공간이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정문 주변 광장 개선 기획 설계를 완료했으며, 정문에서 대학본관에 이르는 구간 일대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교문과 경희의료원 진입 체계를 개선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보행 공간 내에 산책로와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고,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친환경적 공간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는 '상상마당', '북카페', '테라피정원', '비발디숲'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그 안에 분수, 친수공간, 환경 조형물 등을 설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경희의료원 주차장, 진입광장 및 진입로, 경희여중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동시에 친수 공간을 마련하며, 배수시설도 정비합니다.

서울캠퍼스 마스터플랜의 지향점과 맞물려 설계된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사업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경희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념 공간이자, 구성원들의 휴식과 사색을 위한 공원이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열린 마당이 될 것입니다.

첨단 강의실(U-Class System)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 시스템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 시스템을 도입, 첨단강의실(U-Class System)을 구현했습니다.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 지원 시스템은 학생들이 강의실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 학생증을 꽂으면 실시간으로 학생들 신상 정보가 교수의 모니터에 무선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대화형 수업 진행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 강의실은 2006년 시범 도입된 이래 현재 서울캠퍼스 청운관 201, 207, 307, 309호 강의실과 오비스홀 213, 531, 424호 강의실 등 모두 7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첨단 강의실은 출결 관리 자동화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관계를 증대시킵니다.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학생의 얼굴 인지, 좌석 확인도 가능합니다. 웹을 통한 공결 신청(예비군, 병가, 생리공결)도 간편해집니다. 지난해 11월 《조선일보》는 경희대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전자출석 시스템을 갖춘 대학 중 하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종합개발팀 개편

캠퍼스 종합개발팀을 양 캠퍼스 부총장 산하 사무처로 재편하고 캠퍼스 종합개발팀과 관리팀을 연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기능 충돌과 업무 중복을 제거하고, 개발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부총장 거버넌스 체제를 보완해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사업단을 신설, 대규모 건설 자원 유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와 사업단은 캠퍼스 내 공간과 시설을 임대하는 등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며, 캠퍼스 종합개발 관련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함께 신설된 캠퍼스디자인위원회는 건축·조경·공공디자인 소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캠퍼스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학생생활지원존 설치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에 학생생활지원존(Zone)을 마련했습니다. 학생생활지원존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지원존은 취업과 진로, 학생생활, 학생 민원에 대한 상담 수요를 원활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민원창구, 행정, 상담실, 학생생활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생활지원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게시판과 민원 처리 기능을 통합하면서, 주요 행정부서 홈페이지 게시판 및 FAQ와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바로처리실의 온라인 민원 기능도 확대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와 직결되는 학생생활지원존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교내 경관 조명 개선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 경관 조명을 개선했습니다. 정문과 교시탑, 본관 앞 분수대 그리고 평화의 전당에 설치된 야간 조명은 야간에도 경희대 고유의 이미지를 빛내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는 정문(새천년기념탑)과 사색의 광장, 중앙도서관의 경관 조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야간 캠퍼스 환경을 연출하는 경관 조명과 더불어 가로등 등 야간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캠퍼스 경관 조명은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 자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화의 전당과 국제캠퍼스 정문 경관 조명은 야간에도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면서 경희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성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World Civic Fo



대학 문화

경희커뮤니케이션21' 회의록 111건 업로드

'경희커뮤니케이션21'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대내외 이용자들에게 경희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추진 성과를 담은 회의록을 '경희커뮤니케이션21'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서 및 위원회 간 업무 효율화를 진전시켰습니다.

교무위원회, 60주년위원회, 기획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학문화기획위원회, 전체구성원·대표회의, 대학캠퍼스마스터플랜 등 7개 섹션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 2009년 12월 현재 7개 섹션에 총 111건의 내용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경희커뮤니케이션21'은 거요적 정책 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지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소통과 창조적 대학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동문까지 참여하는 '정책 제안방'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 전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구성원의 창의적 의견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 제안방'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정책 제안방은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정책 제안 채널을 통합 관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동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제안방은 공개적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제안을 이용자들이 볼 수 있으며, 투표와 댓글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안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알려주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포상은 네오르네상스상(대상), 창조상(금상), 목련상(은상), 경희가족상(동상)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데, 대상은 총장상과 상금 250만 원, 금상은 총장상과 상금 200만 원, 은상과 동상은 총장상과 각각 상금 150만 원, 100만 원을 수여합니다.

클린 캠퍼스 캠페인

캠퍼스의 표정이 바뀌고 캠퍼스 곳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빛어집니다. 2007년 10월 교내 플래카드 정리 사업으로 시작된 클린 캠퍼스 캠페인은 단순한 미관 정비 사업을 뛰어넘어, 교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이미지(UI) 관리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플래카드 대체용 전자 게시판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IPTV 시스템을 확대해 캠퍼스 내 전 건물에서 각종 게시물 내용을 상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연구와 면학 분위기를 진작하는 클린 캠퍼스 캠페인은 경희대 특유의 대학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학 홈페이지 개편

개교 60주년의 의미와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미래 비전을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험 개설과 함께 구성원 의견 수렴에 들어간 홈페이지는 2010년 2월 현재 콘텐츠 및 디자인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경희대의 UI(University Identity)를 구현하는 홈페이지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개편 홈페이지는 콘텐츠는 물론 디자인과 기능성,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대학 홈페이지의 새로

운 모범을 제시할 것입니다. 디자인은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정체성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학문적 분위기와 예술적 측면을 조화시킬 것입니다.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트 맵과 메뉴를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컴퓨터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미래형 홈페이지는 2010년 5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UI(University Identity) 개편



경희대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창학 정신과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UI(University Identity)가 곧 개편됩니다. UI 변경은 경희 60년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UI는 경희대의 창학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 지난 60년간 경희대를 상징해왔습니다. UI는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학풍, 사상체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표현하는 시각 이미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개교 60주년을 계기로 새로 탄생하는 UI는 지난 2007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지난해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배너와 문장(seal) 등 일부 UI가 시범 적용되었습니다. UI 3차 시안에 대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새롭게 확정된 UI는 2010학년도부터 응용 매뉴얼이 공지됩니다.

뉴스레터 《Lux Humanitas》 2호 발간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3월 창간된 뉴스레터 《Lux Humanitas》가 지난해 8월 제2호를 발간했고, 현재 제3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추진 결과를 공유하며, 구성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뉴스레터는 내용과 디자인에서 학술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ux Humanitas》는 주요 정책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포커스'를 비롯해, 전 구성원에게 비전과 관련된 사업을 널리 알리는 '비전', 교내의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는 'TODAY', 경희학원의 주요 단신들을 엮어내는 'NEWS', 경희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동정을 전달하는 'PEOPLE'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 《Lux Humanitas》는 기존 온라인 매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뉴스레터는 교육 관련 기관, 기업, 고등학교 등에도 배포되어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구현하려는 경희대의 열정과 노력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니홈피 경희' 개설

미니홈피를 선호하는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미니홈피 경희'를 개설했습니다. 지난해 11월12일 공식 오픈한 미니홈피 경희(<http://town.cyworld.com/khu>)는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되어 조회 수 900여 건, 일촌 수 220여 명으로, 방문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니홈피에는 학교 소개 사진과 교내 뉴스를 올리고, 예비 경희인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홍보대사가 주관하는 온라인 캠퍼스 투어 등 미니홈피 개설 이벤트도 걸들였습니다. 미니홈피 경희는 앞으로 디자인과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인 경희대

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0 정책 편람》 제작·배포



시행 중인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0 정책 편람》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정책 편람은 일종의 정책 카드 형태로, 교육 10개, 연구 17개, 국제화 4개, 행정 8개, 복지 4개 등 총 43개 과제의 추진 일정과 취지, 주요 실행 성과, 기대효과, 관련 기관, 담당자와 연락처 등을 정리한 책자입니다.

편람 도입부에는 정책과제의 기획과 실행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단위부서의 업무 형태를 도표로 제시했으며, 정책과제 수행의 4개 요소, 정책 제안서 작성법, 대학본부 부서와 단과대학의 정책과제 업무 수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0 정책 편람》은 104쪽 분량으로 총 1,900부를 인쇄하여 교수 및 직원에게 배부했습니다.

공보위원회 신설

경희대의 비전과 구체적인 발전상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대외 공보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공보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공보위원회는 대외공보전문위원회에서 지난해 교무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옮겨 그 기능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공보위원회는 문화홍보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진곤 객원교수(국민일보 논설고문)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무위원 22명과 취업진로지원처, 입학관리처, 기획위원회 사무국, 대외협력처, 문화홍보처 등 평판도 관련 부서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공보위원회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The Times》 등 국내외 각종 대학평가에서 경희대의 대외 이미지와 평판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앞 녹지 ‘미네르바 정원’으로 변모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휴게공간이 ‘미네르바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의 공간이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자연 속에서 휴식과 독서, 대화와 사색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미네르바 정원은 경희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지난해 9월 완성된 미네르바 정원은 ‘시·소설 낭송·낭독회’, ‘현악 4중주 연주회’, ‘총장과 학생들과의 만남’ 등의 무대가 열려 구성원들에게 캠퍼스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미네르바 정원은 이웃해 있는 ‘고향문화동산’과 함께, 소통하고 창조하는 대학 문화를 가꾸어나가는 열린 광장 구실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학의 향기 가득한 ‘고향문화동산’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인적이 뜸한 공간이었던 ‘시가 있는 마을’(도서관 우측 측면과 밝은사회탑 사이 휴게 공간)이 ‘고향문화동산’으로 거듭났습니다. 고향문화동산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캠퍼스 환경을 개선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앞 미네르바 정원과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향문화동산은 경희대 초창기 역사가 배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1950년대 후반 대학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고향문화동산은 잔디를 새로 깔고, 그 사이에 한국 현대시의 명편을 음각한 시비(詩碑)를 원형

으로 배치했습니다. 또 조형물과 벤치를 설치해 문학의 향기와 함께하는 휴식 공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한마당’ 프로그램을 고흥문화동산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참석하여 시와 소설을 낭송하고 재학생들은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고흥문화동산은 미네르바 정원과 함께 경희 가족을 위한 ‘성찰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정명훈이 지휘한 개교 60주년
‘목련음악회’**



지난해 12월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목련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고, 소통과 창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의 비전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목련음악회는 개교 60주년 송년회의 2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악회는 경희구성원과 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 등 3천여 명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1회 목련상 시상식에 이어 열린 목련음악회는 세계적 음악가 정명훈 씨가 멘델스존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중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지휘했습니다. 연주는 경희동문오케스트라와 경희심포니콰이어가 맡았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피아니스트 김정원, 소프라노 오미선,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하석배, 바리톤 최종우 등이 협연했습니다.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비전 콘서트’**

언론정보대학원 개원 2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비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비전 콘서트는 매년 열어오던 홈 커밍 데이를 확대한 것으로, 동문 언론인과 문화인을 활용하여 동문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발전기금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전 콘서트에는 박지윤, 이승현, 김태우, 2AM, 강산에, 김C, 최유나, 김종욱, 포미닛, 티아라, 초신성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 기부금과 티켓 판매금, 광고비를 포함해 총 8천3백3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언론정보대학원은 행사비를 제외한 모금액 전액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했습니다.

비전 콘서트는 대학원 기념행사로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행사로, 동문 간 유대를 강하게 하고 애교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획에서부터 홍보, 섭외, 티켓 판매 등 행사 전 과정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데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송년회 영상물, e-카드 등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개교 60주년은 동영상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한 원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6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경희의 역사와 비전을 동영상으로 전달할 이래, 동영상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캠퍼스 내 소통과 창조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영상 제작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개교 60주년의 성과를 결산하고 새로운 60년의 첫 새해를 맞이하는 목련(송년)회의를 동영상 위주로 구성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목련회의의 동영상은 60주년 리뷰(약 7분), 경희인이 본 60주년(약 4분), ‘희망 2010 - Towards Global Eminence’(약 7분) 등 세 종류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교내 IPTV를 통해 구성원들



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학교 설명회나 입학식 등에서도 활용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e-카드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앞으로 동영상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정책 수행 과정이나 각종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콘텐츠는 기존의 문서와 사진 자료 등과 함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집적해나갈 것입니다.



전진하는 경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경희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수도권 4년제 대학 중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지원 금액은 38억 2천5백만 원으로, 전년도 지원액 12억 8천5백만 원보다 약 3배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전국 4년제 대학 88개교와 전문대학 96개교를 선정, 총 4천95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견주어 사업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대학은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 금액 산정은 취업률, 국제화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은 경희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KH Spirit & Pride'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폰 클리칭 교수 특강



지난해 7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스 폰 클리칭 교수가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클리칭 교수는 특정 조건에서 홀 저항이 물질에 무관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양자홀 효과를 발견한 데 이어, 전자에너지 측정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의 삶과 현대 나노기술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대학원생과 학부생, 일반인 등 600여 명의 청중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클리칭 교수는 대학의 물리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사회 전반에 과학적 분위기와 함께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리칭 교수는 현대 나노 기술이 공해 없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보다 나은 인류문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희대의 비전과 철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석학 초청 콜로키움 개최



세계적 석학들이 개교 60주년을 맞은 경희대에 모여 대학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석좌교수를 초청,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조인원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여름학기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강의를 위해 체류 중이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유엔 NGO협의체 의장, 프리드리히 크라토크빌 유럽대학원대학(EUI) 국제정치학 교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대학은 '모두를 위한 지식' 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종합대학은 교과과정을 개편해서라도 전공 이외의 넓은 세계를 이해하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며 교양 교육의 강화를 역설했습니다. 21세기 미래 대학은 가능성이 큰 만큼 혼란도 감수해야 합니다. 폴 케네디 교수는 이같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통찰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면서, 경희대가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

다. 지난해 5월에 개최된 세계시민포럼(WCF)과 Global Collaborative로 대표되는 경희대의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의학, 과학 분야 교수 연구 성과



조병수 교수

조여원 교수

지난해에도 경희대 교수들의 학술 활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경희의료원 소아 청소년과 조병수 교수 팀은 세계 최초로 난치성 신증후군을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신증후군은 사구체에 생긴 장애로 인해 다량의 단백질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조교수 팀은 바실릭시맵(basiliximab)이라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법을 발견, 신증후군 환자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조교수 팀의 치료법은 국제소아신장학회 공식 저널 《소아신장학(Pediatric Nephrology)》 2009년 2월 호에 게재되어 세계 신장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병수 교수 팀은 지난해에만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4편을 수록하는 등 진료와 함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현수 교수

손영숙 교수

한외과대학 배현수 교수 팀은 세계 최초로 침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발견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 《유전자, 뇌와 행동(Genes, Brain and Behavior)》 3월 호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침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것으로, 침 연구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생약을 이용한 항알레르기 약물 개발, 우울증 치료제 개발, 봉독 염증 억제원리 규명 등 많은 업적을 남긴 배 교수는 항암제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한약 보조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 중입니다.



류중훈 교수

유창규 교수

생명과학대학 손영숙 교수 팀은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 가동화 기전 및 손상 치유 촉진 효과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 논문을 2009년 3월 8일 《Nature Medicine》 인터넷 판에 발표했습니다. 손영숙 교수 팀과 중앙대 의과대학 김재찬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의 핵심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가동화하는 인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줄기세포에 의한 상처를 신속하게 치유하는 데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근골격계 바이오장기센터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 중장기 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내 및 유럽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전자정보대학 이계산 교수·이규진·Xiaojing Li 팀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ISCIT)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계산 교수 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선 AP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사용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사용자의 이동성과 효율성은 물론 주파수의 성능을 높이는 대신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채널 할당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서의학대학원 홍정우 교수는 '특정 유전자가 동시에 2개의 세포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논문을 세계적 과학 저널 《Science》와 《Genes and Development》에 게재했습니다. 홍정우 교수는 이번에 발견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통해 하등생명체에서 고등생명체로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과대학 유창규 교수는 2009년 9월 SCI급 국제 저널 《일본화학공학회지(JCEJ)》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일본화학공학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유 교수는 외국인 교수로는 처음으로 초청되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약학대학 류종훈 교수, 공과대학 유창규 교수, 동서의학대학원 조여원 교수가 제19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세 교수의 논문은 전국 320여 학술 단체 및 학회에서 추천된 우수 논문 중 세 차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평소 기억의 저장과 도출에 관련된 각종 기전을 연구해온 약학대학 류종훈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기억과 관련된 아데노신 수용체가 기억의 어떤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공과대학 유창규 교수의 수상 논문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환경시스템 최적화 프로토콜의 개발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포스텍 공정시스템 연구실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유 교수는 환경관리 시스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확장해 E3 관리 시스템에 관한 선도적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서의학대학원 조여원 교수의 수상 논문은 영양학과 의학의 통합 연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하는 치료법을 다뤘습니다. 조 교수는 앞으로도 양·한방 임상 및 기초 의과학과 연계된 연구를 통해 의학영양학을 보다 전문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 국제기구 승인 등 교수 대외 활동 활발



전승현 교수



안경모 교수



정완 교수

의과대학 전승현 교수가 영국 국제인명센터(IBC)가 발표한 2009년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되었습니다. IBC는 매년 전 세계 의료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0대 의학자를 선정합니다. 전 교수는 로봇 비뇨기 수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로봇 비뇨기 수술 첨단 장비인 '다빈치 S'를 이용, 기존 수술보다 성공률을 크게 높이고 합병증을 줄인 수술을 실현한 것입니다. 전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도 2년 연속 등재되었습니다.

관광대학원 안경모 교수는 2009년 4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80명 중 안경모 교수가 관광 분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위원회 위촉되었습니다. 안 교수는 사적분과와 천연기념물분과의 위원직을 동시에 맡아 향후 2년간 문화재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됩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 교수는, 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학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2009년 경찰청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치안 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5년 동안 사이버범죄 법률에만 전념해온 정 교수는 사이버범죄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각각에 따른 형사정책적인 연구에 주력하며, 사이버범죄 관련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교수는 2006년부터 경찰청 산하 '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및 인터넷 명예경찰인 '누리캡스'로 활동하며 사이버 치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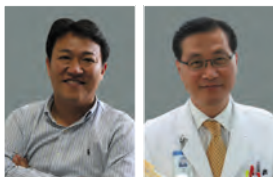
경희대 호텔관광대학(학장 김철원)이 2009년 10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 18차 세계관광기구총회에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준회원 자



격을 얻었습니다. UNTWO는 전 세계 154개 회원국이 가입한 유엔 산하 정부간 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는 관광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총회에 참석한 김철원 학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대표단으로 참석, 19차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김 학장은 이번 총회에서 경희대 개교 60주년의 취지와 WCF가 마련한 UNWTO 스페셜 세션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클래식계에서 대중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 교수(음악대학)가 지난해 연말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12개 도시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마쳤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클래식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펼치며, 고전과 낭만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로 매력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2009년 초 음대 피아노학과 교수로 특채 초빙되어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첼리스트 송영훈,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함께 MIK피아노 4중주단을 구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개념 IPTV, 차세대 교정치료법 국책 연구비 수주



김규현 교수

박영국 교수

전자정보대학 김규현 교수 팀이 지식경제부 대학IT연구센터(ITRC)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 연구센터'로 앞으로 연간 8억 원 씩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는 인터넷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TV를 보고 있다가 자리를 뜨면 더 이상 그 화면을 볼 수 없지만, 기술이 개발되면 다른 장소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이전 화면을 볼 수 있는 신개념 TV입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영국 교수 팀은 '4차원 교정치료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미래기술기반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단은 치대, 약대, 의대가 결합되어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치대가 임상실험을 수행하고, 약대는 새로운 치아가 빨리 자라나도록 하는 약물 기술을 연구하며, 의대는 효과적인 치아 교정기술을 담당합니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치아 교정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 성과와 함께, 지적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학교 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 개장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일원에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이 개장됐습니다.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은 경희대 교수로 재직했던 소설가 고(故) 황순원 선생의 문학세계와 생애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개최된 개장식에는 조인원 총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 김선교 양평군수, 정병국 국회의원, 양정길·황동규 시인 등 유족 대표, 주민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나기 마을은 지난 2006년 국비 50억 원과 도비 25억 원, 군비 49억 원 등 총 사업비 124억 원을 투자해 4만 7640㎡의 부지에 징검다리, 쉼다리 개울 등 단편소설 <소나기> 속의 배경을 재현한 테마 파크와 산책로, 지상 3층 규모의 황순원문학관 등으로 조성된 새로운 개념의 문학공원입니다. 개장 6개월 만에 지역 사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황순원 문학촌-소나기 마을은 탐방객들로 하여금 한국 현대문학에서 경희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

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 대학장 수여



지난해 5월 테너 호세 카레라스에게 대학장을 수여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꼽히는 스페인의 성악가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음악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1998년 백혈병을 이겨내고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 전 세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장은 호세 카레라스의 '인류애의 실현'을 기리기 위해 수여한 것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대학장 수여식에 앞서 경희의료원 17층 어린이병원학교에서 백혈병 환자를 위한 행사를 갖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이겨낸 경험자로서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평화의 전당에서 대학장 수여식을 마친 카레라스는 경희대 음악대학과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나의 인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경희대 개교 60주년 기념 내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호세 카레라스는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한 NGO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동서신의학병원 1일 외래고객 3,000 명 돌파

동서신의학병원이 2009년 10월 26일, 개원 3년여 만에 하루 외래환자 3천110명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개원 1년여 만에 외래 환자 2천 명을 돌파한 후 2년여 만에 3천 명 수준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 개인별 의료상품 개발, 지역 유관기관 건강 검진,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관광 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지난해 정부와 각종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성기 뇌졸중 진료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활전문병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의료브랜드 선포식'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뽑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의료 관광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웹 어워드 코리아 2009' 종합의료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일 외래 고객 3천 명 돌파와 함께, 동서신의학병원은 '의·과학 경희'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져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 국내외 각종 공모전 석권

화학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3기 지기용 씨가 2009년 7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분리막학회(AMS)에서 'AMS 2009 최우수 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AMS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분리막학회의 모임으로 매년 학회가 열릴 때마다 우수논문 발표가 이뤄지는데, 발표자 중 오직 10명에게만 수상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번 AMS에는 400여 명이 논문을 발표한 가운데 지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 씨의 논문은 공정 과정에서 물과 부탄올 혼합물 중 부탄올을 투과증발법을 통해 분리, 농축하는 내용을 연구한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 연구와 연관성이 큰 새로운 주제입니다. 지 씨는 2008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논문 발

표회에서도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관광레저도시 문화콘텐츠 공모전'에서 컨벤션경영학과 박현우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태안을 배경으로 신화와 전설, 역사적 사실, 미래에 관한 상상력을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과 연계시킨 것으로, 박 군 외에 고우형(관광경영), 정상화(호텔관광), 서민호(외식산업), 최연진(호텔경영) 학생이 팀원으로 참여해, 실제 적용이 가능한 참신한 기획안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전자정보대학 강수혁 군과 최희선 양, 최경민(전자전파) 군이 2009년 '제1회 종합설계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 군 등이 대상을 수상한 프로젝트는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완성시킨 '쿼드로터 비행체'로, 리모컨으로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네 개 달린 쿼드로터는 미국의 'Dragon fly'라는 비행기를 소형화한 장난감입니다. 같은 연구실 소속인 수상 팀은 앞으로 로봇 연구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대학원 김나혜, 유엔 정식 채용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과 김나혜 양이 유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2008년 8월 경희대 출신 1호 정식 직원이 된 정치외교학과 정한나 양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김나혜 양은 4단계에 걸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유엔 인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유엔 사무국 평화유지활동 부서의 팀 어시스턴트로 근무하게 된 김 양은 학부 재학 중이던 2007년 경희대 유엔 인턴십에 선발되어 유엔 경제사회국에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며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깨달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김나혜 양은 앞으로 국제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희의 봉사 활동



경희대 노동조합(위원장 김종원)은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0월 30일 국제캠퍼스에 이어, 11월 6일 서울캠퍼스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수원시와 동대문구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부모 가족 세대 등 총 40세대를 선정해 연탄 1만 2천 장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경희대 교직원과 가족이 캠퍼스별로 4개 팀으로 나뉘어 연탄을 배달하면서, 경희대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에서 후원한 '홍삼녹용대보진액' 1천2백 포를 세대당 60포씩 나누어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9월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주민과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희대 학생들로 구성된 '경희봉사단'이 청운관 앞 녹원에서 개최한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에는 조인원 총장을 비롯해 교무위원, 교수, 교직원, 학생, 외국인 학생, 지역 주민 등 2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송편은 동대문구 지역의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한 부모 가정, 노인정 등 18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수원 풍미식품 김치공장에서 경희대 학생 및 교직원으로 이뤄진 '경희사회봉사단' 50여 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장 나누기 봉사는 4년째 이어져온 것으로, 이날 담근 600여 포기의 김장은 행복한공부방, 누리사랑공부방, 수원소망지역아동센터, 장안우리지역아동센터 등 수원시 내 4개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됐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 '예체능 경희' 의 눈부신 성과



김예슬, 문길상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2009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태권도의 문길상 선수, 양궁의 김예슬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경희대 체육부는 지난해에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경희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김예슬 선수는 양궁 3관왕을 기록했고 문길상 선수는 태권도 남자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두 선수는 귀국 후 다음 런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석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실업양궁대회도 메달받았습니다. 이경주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 60m에서 은메달을, 박종보 선수와 김종건 선수가 개인전 90m에서 각각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지난해 전국대학농구연맹전에서는 우리 학교 농구부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대학농구 최강자를 가르는 결승 리그 3차전, 연세대와의 숨 막힌 공방전을 펼치던 끝에 마침내 74대 74 동점 상황,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최지훈 선수의 결승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 결승전은 경희대 특유의 '뒷심농구'를 재확인하게 한 경기였습니다. 주장 박찬희 선수와 김현국 코치는 각각 MVP와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자 하키부는 대학하키연맹전 여대부에서 우승했습니다.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기를 치러낸 하키부는 우승과 함께 강현영 코치가 지도자상, 장수지·임선미 선수가 MVP와 득점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장수지 선수는 골키퍼로서 대회 무실점을 기록했고, 임선미 선수는 7골을 몰아넣어 팀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체조부는 지난해 KBS배 전국체조대회에서 남자대학부 개인 종합 및 단체 종합을 석권했습니다. 평행봉에서 김상우·정재민·최거창 선수가 나란히 금·은·동을 따냈으며, 개인 종합에서도 김상우·최거창 선수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경희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경희대 체조 팀은 한양대, 한국체육대 등 강팀을 따돌리고 단체 부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한편 경희대 태권도 동아리가 제30회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대회에서 남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9년 11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회는 아마추어 태권도 동아리가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회로, 프로 선수나 태권도학과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개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총 762명이 참석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경희인들의 활약은 체육뿐만이 아니라 일반대학원과 예술·디자인대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제2회 대한민국 미르인 예술대전에서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허영무 씨가 공예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수상 수상작인 '석양'은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영감을 얻은 것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의미와 특색이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20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과 고태우 군과 김민지 양이 각각 대상과 작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00여 팀이 예선에 참가, 최종 10개 팀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룬 대회에서 고 군은 '공(空)'으로 대상을, 김민지 양은 '오늘은 어떤가요'로 작사상을 받았습니다. 곧 졸업하는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음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희 문학의 산실 국어국문학과는 지난해 시와 소설, 평론 분야에서 모두 6명을 등단시키며 국



내 최고의 '문인사관학교'라는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준(대학원 석사과정) 씨가 《실천문학》 신인상 시 부문에서 당선된 것을 비롯해, 김학중(대학원 석사과정) 씨가 《문학사상》 신인상 시 부문에서, 손보미(대학원 박사 수료) 씨는 《21세기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에서 연이어 당선되었습니다. 남승원(대학원 박사과정)씨와 차성연(대학원 박사과정) 씨는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에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박성준 군은 계간 《문학과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국어국문과 학생들은 정규 강의에서 채울 수 없는 문학에 대한 열정을 경희문예창작단과 현대문학연구회를 통해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와 선배 문인들의 조언을 받으며 매주 강도 높은 습작과 세미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교 60주년 기념 경희인의 밤 1,000여 동문 성황



경희대 총동문회는 2009년 5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용철 경희학원 이사장, 박찬법 총동문회장, 조인원 총장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동문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교 60주년 기념 '2009 경희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박찬법 총동문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비상하는 모교를 위해 지속적인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모교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총동문회는 2009학년도에도 총 8천4백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서울과 국제 캠퍼스 학부생(서울 17명, 국제 16명)과 대학원생(6명) 등 모두 39명이 총동문장학회 장학금을 수혜받았습니다.

해외 동문 모교 방문 60주년 함께 축하

개교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동문 70여 명이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간의 일정으로 고국을 찾은 해외 동문들은 서울과 국제캠퍼스 등을 돌아보며 모교의 발전상에 놀라워했습니다.

입국 당일 서울캠퍼스 공관에서 조인원 총장, 박찬법 총동문회장 등이 마련한 환영식 및 오찬에 참석한 해외동문들은 이튿날 총동문회 주최 체육행사에 참여하고,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신영수(경영 67학번) 동문을 북미주총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9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청와대를 찾은데 이어 '2009 경희인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동문 70여 명이 모두 무대에 올라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가 하면, 이종호(체육 64학번) 동문과 최명자(무용 63학번) 동문이 뮤지컬 무술을 선보여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외 동문들은 방문 기간 중, 모교 의료원이 제공한 특별 건강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40년만에 모교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오미자 동문은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모교를 보니 가슴이 벅찼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자와 목련

총장 365일

기간 : 2009.1.5(월) - 12.31(목)

공식 일정 (총 949회)

공식·비공식 회의 : 236회

교무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 회의

단과대학 간담회

대학 구성원 대표 간담회

면담 : 447회

부총장/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행사 : 181회

개교 60주년 기념 각종 행사

교내·외 공식행사, 오찬, 만찬

총동문회 관련 행사



LS-Nikko 동제련 음악대학발전기금 전달식



식목일 기념 행사



WCF 개회식

교외 인사 접견 : 79회

정·관·재·학계 인사

북경대, 리쓰메이칸대 등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유엔, CoNGO 등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 협약 체결 관련 인사

언론 인터뷰 : 6회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코리아헤럴드, 동아일보



동서신의학병원 중앙실험실 개소



단과대학 간담회



나카소네 일본 외무대신 방문

통계로 본 경희 2009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09. 10. 1 기준

1.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08. 2. 28	2009. 3. 1
서울캠퍼스 교비회계	2,618	2,791
국제캠퍼스 교비회계	1,580	1,716
산협단체회계(서울/국제 통합공시)	1,051	1,085
경희의료원	2,523	2,622
동서신의학병원	1,405	1,730

* 2008: 결산 기준
2009: 예산 기준

2. 교원 및 교직원 현황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전임교원	교수	408	208	616
	부교수	183	80	263
	조교수	193	101	294
	전임강사	62	30	92
총 교원수	846	419	1,265	

대학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사무직	182	149	331
기술직	19	12	31
기능직	62	47	109
연구직	7	5	12
고용직	19	12	31
총 직원수	289	225	514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동서신의학병원
사무직	171	102
간호직	725	455
약무직	30	28
의료기사직	216	157
연구직	8	1
기능직	537	50
임상계약직교원	69	60
전공의	566	141
기타	103	44
총계	2,441	1,038

3. 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1,967	11,174	23,141
대학원(전문, 특수 포함)	4,750	1,808	6,558
총 학생수	16,717	12,982	29,699

4. 취업률

구분	취업률
서울	78.1%(정규직 : 45.9%)
국제	78.8%(정규직 : 48.0%)

*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기준